朝鮮日報
夕刊
三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利權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雜誌『朝光』『女性』『少年』

長期駐兵을決意코 英米佛에反省促進

三國側依然共同撤退를固執

鼓浪嶼問題

一、日英米佛四個國最高指揮官會議(陸戰隊撤退問題)

【厦門二十九日發同盟】鼓浪嶼問題는 드디어 複雜하고도 微妙한 動向을 보히고잇는바 現狀을 綜合하면 左와 如하다

內外의 視聽을 集中시킨 이 會議는 二十二日에 會議가 開幕되어 뒤를이어 二十三日第二回 二十五日 第三回會議가 續行되엇다 會議는 英米佛側의 共同撤退主張과 我方의 英米佛撤退後 獨自의見解로 適當한時機에 撤退한다는 主張이 中心議題로되어 交涉된 模樣인바 緊急不得已한 事態發生에 依한다는 獨自의見解로 自衛權을 發動한 我方과同時에 撤退하려고하는 三國 特히 이들의 이니시에티브를 取한 英國의 態度에는 相當 不快不滿이다 我主義主張은 이와가티 秋毫도 變化하지안흘것이며 境遇에 依하여는 長期駐兵도 不得已하다는 決意미테 三國의 反省을 求하고잇는 模樣이다 確聞하면 最高指揮官會議는 前記의 狀態로써 決코 終了된것이 아니고 鼓浪嶼問題解決의 最高交涉機關으로써 中央交涉委讓의 權能을가진것으로 看做되어 이點에 잇서 重要性을가지고잇다 我方의 正姿的行動은 하루하루 列國의 認識하는바가되어 事態는 漸次 有利하게 展開하여가고 我要求貫徹은 至難한것이 아니라고 觀測된다

一、現地外交交涉(工部局改組問題)

이問題의 中心이되는것은 我方의 工部局改組의 五個條要求이다 現地外交交涉의 主體는 內田總領事와 鼓浪嶼工部局參事會議長 히-치코크氏로 이에附隨하여 英米佛三國領事도 參加하고잇서 이미 五個條要求中 第一條 第五條는 全面的으로 容納되엇스나 二、三、四의三條는 아직도 交涉中 特히重要한것은 第三條인데 工部局長、秘書長을 日本人으로하고 其他에도 可及的日本人을 採用할것에 對하여 工部局側은 全面的으로 不贊成의 態度를 取하고잇서 本條에 關하여는 今後幾多의 折衝이 거듭될것이다 內田總領事는 이미 確信을어든것가티 『有利하게進展하고잇다』라고 다만 一言하고잇다 厦門交涉의 現狀은 大體以上과 가튼데 兩問題는 이미 別個의 問題로보는것은 不可能한일이고 治安維持의 點에서 不可分的關係에 잇스며 他面 複雜性을 가진것으로 今後의 動向은 자못注目된다

厦門工部局側回答 我質問點을回避

【厦門二十九日發同盟】압서工部局이 英、米、佛陸戰隊 上陸에 關하여 我軍의行動을 云云한과 가튼 重大布告를 發한데對하여 內田總領事가 右布告의 眞意說明을 要求한것은 旣報와갓거니와 工部局參事會議長은 內田總領事에게 二十九日左와如한 回答을 하여왓다

本件布告는 鼓浪嶼在留支那人이 日本陸戰隊上陸에 動搖하여 英、米、佛陸戰隊가 上陸한目的을 誤解、憂慮가잇섯스므로 民衆으로하여금 平靜케하여 不法行爲를 嚴重處罰하려고 如斯한布告를 發한것이다 日本側은 이미陸戰隊上陸에際하여 安民布告를 發하고 陸戰隊上陸의 目的을 達하엿스므로 工部局의布告에對하여 日本側이 憂慮하는가튼 事態가 잇스리라고는 一般民衆은 생각치안는다

右回答은 日本側이 가장 重視한 「鼓浪嶼陸戰隊가 撤退하엿다」고한 事件이란 무엇을가르친것인가의 點에對하여는 一言도 言及하지안코 全然 無誠意한回答이라고할것이며 全面的으로 我方을 滿足시키는것이 못된다

內田總領事 積極的交涉開始乎

【厦門二十九日發同盟】各國領事와의 個別會談을마친 內田總領事는 드디어 三十日부터 이의解決을爲하여 어떠한 積極的外交交涉에 進出할것으로 觀測되는데 六月上旬부터 英、米、佛各國領事와서도 會談이 開始될 模樣이다

時事解說 集團保障制

[illegible]

抗日策動阻止目的 厦門連絡部當局談(交通遮斷問題)

【厦門二十九日發同盟】興亞院連絡部에서는 大陸과의 交通遮斷에 關하여 二十九日左와如한 談話를發表하엿다

이미 帝國海軍이 大陸과의 交通을 嚴重封하는 事에나온데對하여 그 眞意를 解하지안코 各種臆測을 하는 者가잇는바이다 帝國이 過去一年에 亘하여 厦鼓一帶의 地를 [illegible] 努力과協力을 하여온것은 [illegible]

襲來敵機百臺와 未曾有의大空中戰展開

노몬한戰詳報

【新京二十九日發同盟】二十八日午後노몬한 附近에서의 滿蒙空軍의 戰鬪詳報는 如左하다

二十八日午前九時頃 노몬한上空을 警戒中이던 我空軍部隊는 멀리 彼方의 國境線上空에 蘇聯E十六型戰鬪機五機가 編隊를지어 不法越境해옴을 發見하자 곳이를擊退하고저 猛然와가티 蘇聯機를 攻擊하여 空中戰을 展하며 一機二機次例로 擊墜하여 六分만에 五機全部를 擊墜하엿다 我空軍에게 全機를 擊墜當한 外蒙空軍部隊는 午前十時十分頃 다시 二十機의 編隊로써 襲來하여왓스므로 一機도 남기지안코 我荒鷲部隊는 彈丸과가티 달려나가 急降下橫轉等 모든 秘術을 다하여 蘇聯機에 對하여 四方으로부터 달려들어 瞬息間에 七機를 擊墜하고 我空軍全機는 남은十三機를 滿身創痍의 敵와가티만들어 同十八分 空軍部隊 大敗에 退시켯다

壯한 決意를한 外蒙裝甲部隊는 午前十一時四十分 戰車十輛을 先頭로 蘇聯步兵一千 搭載砲十門을 가진 外蒙步兵三百과 蘇聯機七十機大編隊群協力下에 砂塵을 利用하여 滿領內로侵入 不法하게도 滿領에 왓스므로 國境附近을 警戒中이던 日滿地上部隊는 이를捕捉殲滅하고저 滿洲國領內에 誘導하여 戰機가익자 敵의側方을 迂回 混亂에 빠진 敵部隊中에 突入하여 이를 擊滅하고 更히戰意를 喪失하여 潰走하는敵을 急追 徹底的銃火를 퍼부어 國境線外로 擊退시켯다 또 我荒鷲의 精銳는 七十機의 敵戰鬪機를 邀擊하고 蒙古高原을 蔽하는 轟轟한 爆音과 銃砲彈의 炸烈下에 彼我의空軍은 戰史上일직보지못한 大空中戰을 展開하엿다 我精銳機는 豪膽하게도 寡機로써 編隊群中에 突入하여 敵의編隊를 潰亂시키고 左로右로 달려들어 正確히 이를攻擊하여 僅三分만에 十八機를 擊墜하고 更히 第二次攻擊에 올마二機三機를 擊墜하고 瞬時間에 十二機를 射落하고 겨의 十五分間의 空中戰에서 蘇聯機三十機를 擊滅하고 凱歌를 부르면서 機首를돌려 敗退하는 敵機를 追擊 國境線外로 擊退하고 空陸으로부터 外蒙大部隊를 殲地에서 擊滅하여 國境確保의 大空中戰을 마치엇는바 이戰鬪에서 敵은飛行機四十二機를 擊墜當하고 地上部隊도 滿領內에 死體百五十을 遺棄 大敗를 喫하엿다 我方의 損害는 飛行機一機(搭乘者는無事)와 戰死六名 負傷者二十三名을내엇다

노몬한事件에 蘇側沈默態度

【紐育二十九日發同盟】滿蒙國境노몬한 附近에서 外蒙兵의不法越境事件에 關하여 二十九日紐育에 到達한 AP莫斯科電은 蘇聯側이 一切事實을 發表치안코 沈默을지키고잇는旨 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滿蒙國境의 衝突事件報道는 二十九日에이르러 드디어 莫斯科外國人側에 達하엿는데 蘇聯側에서는 一切沈默을 지키고 잇는바 衝突報道를 否定도肯定도안하고잇다 事件의動機에對하여는 外國人側에서는 各種推測이 流布되고잇스나 如何間紛爭이 更히擴大할 境遇에는 蘇聯으로서는 必然的으로 歐洲政局보다도 極東問題에 關心을가지지안흐면 안될立場으로 現在英佛蘇三國同盟締成交涉 繼續中인 反獨同盟締成交涉에 重大한 影響을바들것이라고 觀測된다

背後엔相當兵力 續續增援할氣勢

蘇聯機械化部隊도參加

노몬한 事件에關하야 三十日當地某機關에 到着한 情報에依하면 廿八日에 越境한 蘇聯外蒙部隊는 蘇聯步兵騎兵各一個大隊와 外蒙騎兵約三、四百名과 戰車數輛、飛行機百餘機와 大砲十餘門과 이밧게 蘇聯機械化部隊若干이엇다 背後에는 相當한兵力이잇는듯하며 답스크方面으로부터 續續增援할 氣勢가보힌다 그러나 이번行動은 [illegible]의 示威行動으로보인다

外蒙軍의現勢力

當地某機關에達한 確實한情報에依하면 不法越境한 赤色外蒙軍의 空陸에亘하는 大量殲滅戰은 無敵關東軍의 精銳에 一蹴되어 赤軍沮喪하고잇는바 蘇聯極東軍의 指導下에 잇는 赤色外蒙軍의 現勢力을 列擧하면

外蒙現有兵力

▲國軍部隊

騎兵十個師團(外蒙兵)(內機械化部隊一個師)

蘇聯赤軍二個師(內機械化一個旅)以下兵力十八、九萬人

▲空軍勢力

飛行機 三百二十臺可量 內蘇聯機三分之一(百機可量)

그空軍所屬兵力七百名(內蘇聯將校는모두蘇聯將校) 今年初頭以來 續續하여 入國하고잇는바 蘇聯極東軍의 指導下에 잇는 赤色外蒙軍의 [illegible] 外蒙軍內에도 蘇聯의 顧問이 確立되고 指導將校는 全部蘇聯人으로 目下國境東軍第二獨立赤軍에서 增援中인데 二十八日戰鬪에서 外蒙軍의 노몬한前面線의 兵力은

▲戰車 十五、六輛

▲外蒙兵 三、四百名

▲蘇聯部隊 一個大隊

▲砲十門

▲飛行機 百餘機

이라고한다

鴻大한聖恩에 奉副도록努力하라

勅語를拜하고 南總督謹話

去二十二日全國學生生徒에게 下賜하옵신 勅語를 拜하고 南總督은 三十日左와如한 謹話를 發表하엿다

恐懼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五月二十二日 午前에는 全國學生生徒代表를 御親閱하시와 一同無上의 光榮에浴하여 다만 皇恩의 두터우심에 感激하고잇섯더바 同日午後에는 特히 文部大臣을 宮中으로 召하사 優渥하옵신 勅語를 下賜하시와 靑少年學徒의 覺悟바를 照示하시옵셧다 眞實로 恐懼感激 어디比길때가업다 謹惟하건대 天皇陛下께옵서는 일찌기 敎育에對하사 기피軫念하옵시어 國運國民의 振興에 關하사 優渥한 勅語를 下賜하옵시고 이제 또 [illegible] 에不堪하는바이다 玆에삼가 訓令을發하여 이를管內에 告知하고 聖旨에 奉副할것을 諭示하는바이다 皇國의後繼인 我靑少年 勿論이요 [illegible]

南總督、奮起促望

精動聯盟役員에

內鮮一體具現의 全面的活動에 對하여 有力한 任務를가지고잇는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에 對하여 南總督自身이 그機能發揮를 促進하여 現下時局에잇서 半島當面의 國民精神昂揚에 關하여 呼訴하려고 南總督은 前日의 臨時知事會議 同中樞院會議에 繼續하여 三十日午前十時 總督府第一會議室에 川島總裁以下 顧問 參與理事 評議員 參事 聯盟全役員約二百數十名의 參集을 求하여 南總督은 今回의 渡東成果에 對하여 前日의 知事會議에서 披瀝한 方針을 一層의 强化充實에 [illegible] 大略同樣의 力說 다시 時局下의 聯盟活動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各役員의 奮起協力을 要望 約一時間半으로 同十一時半散會하엿다

敵萬餘大軍을集結 常營集奪取를企圖

新黃河西南岸에大陣地構築

【開封三十日發同盟】湖北西北部의 我軍의 莫大한戰果가 發表되자 重慶政府는 이에對抗上 盛히 逆宣傳에熱中하고잇서 夜間은特히 一時間을延長하여 日蘇交戰의 데마放送을하고 特히湖北湖南兩省境으로부터 開封方面에對한 데마放送에힘을 드리고 잇는데 開封은 最近我警備軍에 依하여 平穩한狀態를 繼續하고 잇스므로 支那人間에는 重慶放送이 如何히 데마放送인가를 實證하고 民衆은 다만 苦笑하고잇을뿐이다 또 蔣介石은 이逆宣傳과 併行하여 河南省京漢線一帶의 大軍을 新黃河前面으로부터 南方地區로 盛히移轉시키어 我軍의 渡河를 警戒하는 同時에 新黃河下流附近의 我警備地域으로부터 몰래渡河하고 잇서 四月攻勢의 敵本據常營集의 四十의 토치카陣地 一萬數百의 大軍은 脆弱하게도 我軍에게擊滅되엇슴에不拘하고 이常營集陣地에未練을가지고 機會잇스면奪取하려고 常營集南方으로大部隊를集結하고 잇는模樣이엇스나 그先遣部隊인듯한敵數百이잇는것을 알고 我太康의 ○○部隊主力은 二十五日 이를 急襲大打擊을주어 西方으로潰走시켯다 我急襲으로 狼狽한 敵은五十의 遺棄死體와 多數의 武器를남기고敗走하엿다 이先遣部隊의 潰滅에 依한 敵主力은 常營集에의方向을 一轉하여그南方順陽方面으로向하여 南下하고 西華周家口의 線으로부터 新黃河西南岸에 目下永久的토치카陣地를構築中이다

海底電話線切斷 英汽船安慶號

【厦門二十九日發同盟】紛糾되던 鼓浪嶼問題가아직 解決되지안는 二十九日午前九時 入港한英國太古汽船安慶號가 厦門鼓浪嶼間海底電話線을 암카로切斷한 不祥事가突發되엇다 同船은從來도屢次入港하여 電話線沈沒附近에는浮標가잇서 碇泊이禁止되어잇섯던바 我通信所는이것이 潮流에依한 不可抗力의것인지 어떤지를 目下調査中인데 厦門鼓浪嶼間電話不通으로 鼓浪嶼在留邦人의 不便은 倍加되엇다

005123

重傷者四萬一千 爆死二萬九千餘

空襲에依한支那側損害統計

重慶政府發表

【上海二十九日發同盟】當地支那紙가 報道한重慶政府發表의 正式統計를보면 月末까지의 我空襲에依한被害는 爆死二萬九千二十人 重傷四萬一千五百八十五人인바 이外最近의 重慶空襲에依한死傷은 五千人을 넘을것으로 推算된다 又事變發生以來 三月末까지에 日本空軍에依하여 空襲된 回數는 三千九百五十三回 投下된爆彈은 七千九十五個 破壞된家屋은 十萬六百六十八棟이라고 公表하엿다

알바니아軍을 伊軍에編入

【티라나二十九日發同盟】알바니아政府는 二十九日에 閣議를열고 正規軍憲兵國境守備軍으로된 알바니아軍隊는 今後伊太利軍의 一部로서 各其部門에 編入키로 決定하엿다 近間右決定을 伊太利皇帝에마누엘三世에 傳達하고저 代表를 羅馬로派遣하기로되엇다

蘇聯極東에 移民을積極獎勵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最近蘇聯政府가 極東地方에 人的資源開發을爲하야 移民을獎勵한結果 各地로부터 希望者가 多數出現 比較的人口稠密한 우크라이나共和國으로부터 카자흐스탄、 볼가州뿐아니라 邊境地方으로부터도 極東에의 移住希望者가 만하 大部分農民이오 移住先은 主로 하바롭스크와海濱州인바 此等移住者의 移住地施設에는 第一及第二獨立赤軍司令部가 當하고잇서 共產黨에는 政府의命令을바더 미리 移住者를爲해 住宅도新築 自動車、貨車도準備하고잇는等 極東의 人的資源開發을爲해 큰關心을보이고잇다

滿洲國砲艇二隻 蘇聯砲艦에被擊

우소리河畔東安鎭附近서

【新京三十日發同盟】二十七日東部蘇滿國境우수리江畔東安鎭(饒河下流六十키로)附近의 江上에서 江防艦隊所屬의 砲艇二隻이 突然蘇聯砲艦에게 不法射擊을 바더 相當한 損害를 바든模樣이다 이事件에關하야 滿洲國外務局은 三十日在哈爾濱外務局特派員으로하여금 蘇聯領事代理에게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商工省機構改正案 樞密院審查委員會

【東京電話同盟】商工省官制改正案에關한 樞密院의 第一回審查委員會는 三十日午後一時半부터 [illegible]

閣僚參議 定例懇談會

【東京電話同盟】三十日定例閣僚參議懇談會는 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되어 各參議出席各閣僚와 午餐會를 한 後板垣陸相 有田外相으로부터外蒙兵越境事件에對하여 說明하고 午後二時지나 散會하엿다

英伊初會談注目

【羅馬二十九日發同盟】新任駐伊英大使파-시·로렌氏는 去八日羅馬에 着任하고 伊皇帝에 對하여 信任狀을 捧呈하엿는바 로렌大使는 二十七日夜 베네챠宮에 外相의同席으로 首相을 訪問하고 차노의 會談을 行하엿다 英伊關係가 最近英의 獨伊包圍政策의 積極化에 따라서 急速히 惡化되고잇는때인만큼 이會談은各方面의 注目을끌고잇다

上海테로一黨 一網打盡

【上海二十九日發同盟】我上海憲兵隊는 일찌기 上海佛租界八仙橋에 本據를둔 忠義救國軍第十六團의 組織을 探知하고 그行動을 內偵中이던바 去二十五日大隊長以下幹部八名이 一齊히 虹口地區로 侵入하려고하는것을 察知하고 이를 一網打盡으로 檢擧하엿다 同軍은 蔣政府直屬部隊로 日本軍과 數次에亘하여 交戰한 記錄을가지고잇섯는데 다시租界內에 根據를두고 抗日테로運動하고잇섯다

間諜嫌疑南邦人釋放

【巴里二十九日發同盟】大倉商事會社巴里出張所長日疋誠及 川崎航空工業會社巴里駐在員 四本淸兩氏는 去四月上旬以來 스파이嫌疑로 巴里南氏監獄에 收容되어 取調를바덧섯스나 二十九日嫌疑가 풀려서 無事히出獄하엿다 兩氏는去十五日 이미取調를

八面鋒

滿蒙國境 "노몬한" 에선 激戰이 展開되어 蘇機四十二臺를 擊墜하고 地上部隊 一千名도 殲滅했다고。◇

第二 張鼓峰事件이 생겻나보다。◇

그러나 朝鮮과距離가 멀어 報道이 적은것이다行이다。◇

事變以來 皇軍의占領한 地域은全支國領土의 二倍半 敵의 遺棄死體만 九十三萬餘라고。◇

重慶政府서도 空軍에 被襲된 重傷者만 四萬一千、爆死된者 는二萬九千餘라고 發表햇스니 事變의 程度가 얼마나큰것을 可知。◇

皇軍의 犧牲者 六萬餘名은 比較도 안케 적다할밧게。◇

待遇가 薄하다고 敎員과 警官들의 轉職이 續出。◇

敎育者、警官이 돈에 움직일것은 아니로되 生活苦가 잇서 驅動이 만타면 考慮할問題。◇

戰時手當制가돈것을 許함이 如何。

人事·集會

▲大竹十郞氏(內務局長) 馬山港灣修築工事起工式參列次 六月三日頃出張 十一日歸任豫定

▲河合治三郞氏(朝鮮運送株式會社社長) 新任人事次三十日來社

▲荻原三郞氏(同會社專務取締役) 同上

▲增田平八氏(同會社常務取締役) 同上

▲高瀨勝朗氏(同上) 同上

本社參觀(三十日)

▲定州郡五山高校生徒八○名 引率 崔根氏引率下 二十九日 本社參觀

▲安邊郡文山普校生徒九九名 引率 洪南氏引率下 同上

▲瑞興郡新幕普校生徒三四名 引率 天範氏引率下 同上

▲寧邊郡少林山普校生徒一一四名 引率 李元淳氏引率下 同上

마치고 無期釋放으로 決定되엇스나 歸國不明하게 今日까지出頭을 延期한것이다

廣告

連日超滿員謝禮
藝術의殿堂
明治座
電本 ②二一四八四番 ②二八八八番

流行歌
國境의燈불
태평레코-드

官認 東洋自動車講習所
學生募集

朝報案內
運轉手
採用
事務員募集
急讓
賣別莊 桂鳳天

脊髓病
手足麻痺骨筋痲痺痛 脊骨突出等에如히
明石市中町 太平堂製藥社

漁具 投網 鳥網と釣具
製造卸商·京城竹添町一 網屋

梨花五十三周記念

十年을하루가티勤續한"支柱"十三氏의 表彰과아울러盛大히擧式

지금으로부터 오십삼년전 오월삼십일 미국선교사 "스크랜톤" 부인이 생도한명을 가르키기 시작하여 [illegible]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illegible] 으로 부녀교육의 새길을 닥거와 오늘의 이화여교(梨花女校)에 [illegible] 이화학교에서는 금 삼십일 오전열시부터 [illegible] 대강당에서 그 학교 창립 [illegible] 주년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겸하여 십년이상 근속교직원 [illegible] 의 표창식을 거행하엿다 [illegible] 식장인 [illegible] 강당에는 이화전문, 이화보육, 이화고녀의 전생도 [illegible] 내빈다수가 [illegible] 윤치호(尹致昊)씨의 개회사로 식은 시작되어 [illegible] 국가제창을 마치고 [illegible]

(金[illegible])목사의 [illegible] 기도가 잇슨후 고황경(高凰京)교수 [illegible] 로부터 이화가 [illegible] 년동안의 [illegible] 현재에 이르기까지 [illegible]

▲모리스▲칸모▲라욱스▲베이커▲메이너▲우드▲方信榮▲金愛[illegible]▲金[illegible]▲[illegible]▲二階堂▲李[illegible]▲朴[illegible] [illegible]

(사진상은 표창바든 교직원 [illegible] 하는 [illegible])

"피한방울과맛잽이"!

까솔린統制더强化

自動車타긴漸漸더어려워간다

오는 [illegible] 일부터 『까솔린』 통제가 [illegible] 강화되어 전조선의 『택시』 [illegible] 더욱심각해지게되엇다 [illegible] 조선에 휘발유(揮發油) 배급통제가 실시되어 휘발유는 전표로써 판매하고잇섯는데 그동안에는 이 전표에 의한 조선내배정수량이 외에 민간의 재고품이 상당히 만히잇서 그대로 일반적으로 휘발유가 그대도록 모자라지는 안헛섯는데 최근드디어 조선내의 재고품도 [illegible] 전부소비되어 [illegible] 칠월부터는 사실상 조선내의 배정량만으로써 소비하여 [illegible]

[illegible] 종래의 [illegible] 까솔린 [illegible] 소비량 [illegible] 가 [illegible] 승용자동차는 [illegible] 남이 더해가고잇스므로 일반민수와 [illegible] 을 밧게되엇다

택시의使用量은 3割7分縮減

乘用者는自肅하라

전조선의 『택시』 한대하루의 평균(平均)은 이십『릿틀』 [illegible] 사용량 [illegible] 십삼 『릿틀』 [illegible] 감소되어 [illegible] 도시일수록 [illegible] 일반용자의 자숙 [illegible]

咸鏡線復舊

工事中一名殉職

[咸鏡線[illegible]] [illegible] 함경선(咸鏡線)불통중이던 [illegible] 사이는 [illegible] 복구작업 [illegible] 다섯시에 복구되엇다 [illegible]

橫領店員押來

침목(枕木) [illegible] 나남(羅南) [illegible] 자기가 다니는 상점에서 [illegible] 신경(新京)으로 [illegible] 용산서로 [illegible]

四大重要諮問案

六月二日初府會上程

街路網變更、風致區指定、公園計畫

경성부에서는 오는 [illegible] 일오후[illegible]시부터 [illegible] 부회를 부청회의실에 소집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부회에서는 [illegible] 의장을 [illegible] 부개정안을 [illegible]

一、시가지계획 가로망일부변경

一、풍치지구지정안

一、공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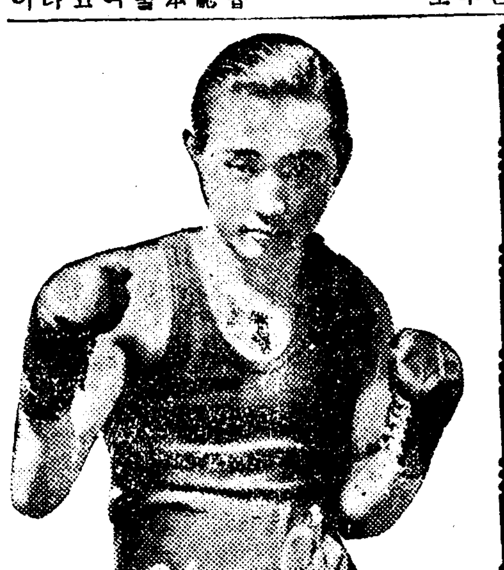
一、지역제(地域制)지정

등 사대중요자문안에 대한 답신을할터이다 [illegible]

富山에大火

損害三百萬圓

【富山[illegible]】 [illegible] 부산시 [illegible] 의 창고안에서 불이일어나 [illegible] 유소하여 [illegible] 스물네간의 대가람을 전소하고 [illegible] 손해는 이백만원을 넘을모양이다



無敵피스톤堀口를 擊破한玄君의偉勳

프로拳鬪에도王座獲得

【東京支社電話】 [illegible] 이번에는 [illegible] 玄君에게 [illegible] 堀口를 [illegible] 제일전 [illegible]

延專과普專出征

全日本蹴球選手權에

六月一日과五日에各各登程

六月九日부터 東京에서 열리는 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는 延專蹴球部는 [illegible] 六月一日 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할터이며 [illegible]

◇普專蹴球陣容

▲引率者=李[illegible]▲마네저ー=[illegible]▲選手=[illegible]

◇延專蹴球陣容

▲引率者=玄正柱▲主將=李容一▲選手=[illegible]

高專籠球리그第四日

法專、佛專各勝

大學、高專籠球리그第四日(二十九日)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法專27(16 11 / 8 13)21藥專

佛專23(15 8 / 9 13)22大學

文川農組事件

五十九名今日判決

【咸興支社電話】 함남문천농민조합(文川農民組合)사건의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오십구명에대한 [illegible]

銀行아페"깽" 女人핸드빽强奪

敦岩町電車二區制

모레부터撤廢된다

남의봇짐을 들고빼손이

욕만하는안해

못살겟다고離婚訴

情死行

토목건축하다 가지고

「自稱官吏」

쭝내다警察에

至急電話抽籤

六月二十日頃執行

今年度陸軍志願兵

前後期六一五名發表

소화십사년도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陸軍兵志願者訓練所)호련소생도로서 입소시키게된사람은 금 삼십일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京畿道(前期) [illegible]

▲…黃海道(前期) [illegible]

▲…平南道(前期) [illegible]

▲…平北道(前期) [illegible]

▲…江原道(前期) [illegible]

▲…咸南道(前期) [illegible]

▲…咸北道(前期) [illegible]

▲…忠北道(前期) [illegible]

◇…忠南道(前期) [illegible]

▲…全北道(前期) [illegible]

▲…全南道(前期) [illegible]

▲…慶南道(前期) [illegible]

▲…慶北道(前期) [illegible]

第一回後期生 今日修了式擧行

총독부지원병 훈련소 소화십삼년도(제일회)후기생 이백삼명의 [illegible] 가튼 순서로 [illegible] 훈련소에서 거행하엿다

六月十日에 前期生入所

天氣豫報

오늘밤도 내일도흐리고 때때로개이겟다

二十九日最高 二七度六

同 最低 二二度七

三十日朝最低 二二度六

同 正午 二三度三

放送

第二放送 午後六時(平)少年小說『友情』▲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六時三〇分 講演『朝鮮家庭婦人에對하여』▲七時三〇分 講演『[illegible]』▲八時(大) 吹奏樂▲八時二五分 連續라디오小說『[illegible]』▲九時 歌謠曲▲一〇時 一〇分中繼[illegible]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자가 발표되엇다 [illegible]

빅타ー新傑作

無敵巨砲陣

滿浦線千里길 黃琴心 KJ一三八

술醉한陳書房 金龍煥 KJ一三九

외로운街路燈 黃琴心 KJ一三七

봄 피 리 朴丹馬 KJ一二九五

無情한사람 趙白烏 KJ一二六四

이래야만쓸겟소 李圭南 KJ一二六八

스리스리봄바람 李仁根 KJ一二八六

追憶의豆滿江 宋達協 KJ一二七七

情다운우리 朴丹馬 KJ一二八八

望鄕의가을밤 鮮于一扇 KJ一二五四

液虫殺 フマキラー

質 移轉先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三二 專賣局義州通工場前入ル 本多質店 電話光四二二〇番

관상사주 春岡裵相哲先生! 觀相四柱

科目及料金 [illegible]

京城府[illegible]町 [illegible] 梨花町[illegible] 一同白

男性美の極致! 보송보송해서끈적거리지안코 高尙한色艶은오ー 긔靑年層에 絕讚을밧고잇습니다!

伊豆椿ポマード 伊豆椿香油本舖 大阪 彩芳園 全國百貨店·藥店·化粧品店에有함

本邦唯一 每年配當附 小口貯金保險 一口三百圓均一 地方出張所長 支店所屬 固定給社員 常時募集ス 希望者履歷書提出問議 京城府永樂町二ノ五六 板谷生命朝鮮支店

淋疾讀本 淋疾의病原體인淋菌을選擇的으로殺滅하야淋疾을原因的으로根治하는萬人待望의化學的淋疾治療法遂完成! 『淋疾은不治의病』이란從來의觀念을修正할時代가왓습니다!

藥書를請求하시면 見本을贈呈

二十世紀科学陣의勝利! 化學的治淋劑 A-G錠

藥價 三〇錠 五圓 (全國藥店에서販賣합니다)

京城府禮智町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

結核發病과增惡에備하라

1 增血 (白血球의喰菌力을旺盛하게)

錠劑わかもと에 豊富한누구레인、鐵、銅等은 血液의增製에不可缺의榮養素인데、京都帝大微生物學敎室에서硏究한바에依하면、特히白血球의喰菌現象은「わかもと」의 授與에依하야 顯著한것을 認證하엿습니다、따라서、侵入한病菌을 殲滅하며、病竈의擴大를 中止시키는것입니다、

2 解毒 (微熱과盜汗을除去함)

錠劑わかもと에 含有한비타민B_2는 結核菌의滲出한 毒消를解消하며 구리고ㅣ겐도 또肝臟에서 解毒하는 作用이잇스므로、兩者가서로 呼應하야患者에 가장 苦痛되는微熱、盜汗、其他頭痛、惡感等의毒素障害를消退식혀서 療養期間를短縮합니다。

3 榮養 (食慾을振興하야肥胖을圖함)

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야면 저느끼는것은、胃腸의健全化에 由來하는快適한空腹感입니다。그리하야 食餌의榮養化率을 무럭무럭노피고、食物中에不足하기쉬운 各種비타민과 無機質을充分히 補給하기때문에 衰弱은肥胖으로轉換하야、自然히抗病力이昂揚합니다。

初夏節에는

氣溫의上昇에伴하야、體內의新陳代謝가次第로活潑하게되므로、外界의刺戟은더욱더強하며、天候不順等의影響도잇서서、諸器官의機能은變調를齎來하기쉽습니다、一方

結核菌의活動

은、마치잠자는獅子가잠을깬것과가티猛烈하게됨으로、肺門淋巴腺炎、肺尖가다루、助膜炎等의發病、或은突然한咯血、發熱에서시작되는結核病의再發、增惡等의危險은極히濃厚한것입니다、이것에對하야 複合헤ㅣ예菌劑 錠劑わかもと는下段과가튼綜合的藥效를強力으로發揮함으로結核의防衛、及克服함에는有力하여서信賴할만한武器가되는것입니다。

005124

婦人과結核

結婚適齡期에當한 二十歲前後는婦人의結核死亡率中最高에達하여 다음에오는 姙娠과出産에際하야發作하는여러가지障害는結核의發病或은 一旦恢復한것이 再發하는絕好의機會가됨니다

그러나 全快者면結婚과 姙娠을무서워할必要는업습니다 도로혀 積極的으로健康의增進을圖해야되는대 錠劑わかもと를愛用하면變動期의抵抗力低下를 防止할뿐아니라 惡阻、脚氣、産後의衰弱을恢復하야 無事히危機를克服할수가잇습니다

世界へ輸出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十歲前後의兒童에는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五十日量、三歲前後에는六十日量에該當함
德用千錠入　五圓　慰問袋用　五十錢

株式會社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大阪・福岡・京城・奉天・天津・上海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胃腸榮養　複合ヘーフエ菌劑

우리애기

금붕어

금붕어는 아가가리 밥풀을 잘먹습니다。
아가도 금붕어 가리 밥풀을 잘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는 금붕어하고 아주 친한동무입니다。
밥먹을 때면 언제든지 아가는 금붕어가잇는 어항으로 밥그릇을 가지고 갑니다。밤에잘때도 아가는 늘머리마테다 어항을 갓다노코야 잡니다。
(글쓴사람 김영수)

家庭

구주대전때 독일의 비참햇던 가정경제

한주일에한번밧게파는소고기사는데 왼가족이차례로밤을새며기달려

지금 우리는 전쟁을 겪고잇스면서 전쟁이란 경제적으로 얼마나무서운것을 절험모릅니다。이번정부에서는『빠터』『밀크』『사탕』차、개란、생선통조림、가튼것은 되도록 외국에팔고 국내에선 먹지말자는 총동원법제팔조가 발동되어 사실 지금 시내 각식당에선 인수빠터를 쓰는것을 누구나 곳알수잇습니다。

이제 세계대전때 독일서 자라난걸필수씨부인『겔트루드·빅츠케』부인의 그무시무시한 경험담을 들어서 우리일반가정부인들께 배움이 만키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진은 겔트루드부인)

세게대전때 나는 열네살이엿습니다。그때 독일사람들의 생활이란 어린에게도 어찌무섭게 머릿속에 백혀덧지 이십여년이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즐수가업습니다。

조선부인들은 전쟁이란 얼마나 무서운것인줄 도무지모르고 잇는군요 그래내가 기회잇는대로 그런이야길하면 잘보앗어요。

고기사는데

지금도 이저버리지 안혓서요 나는그때 우리어머니와 동생들과잇섯는데 우리 왼 독일사람들은 먹을것 불땔것 입을것할것업시 정부에서 내여주는『표』에다 왼가족의 수효를쓰고 이표에적히는 분량만 물건을 삿습니다。

고기를 한주일에 한번씩파는데 고기살사람들은 줄을지여 차레로사는데 서서먼저가서 사려고 밤 새로 두시、세시부터 그이튼날아침 여덟시 고기판문을 열때까지 줄을지여 기다립니다。그러면 밤이시려서 신분지를가지고가서 발을싸고 잇섯습니다 그리고 애밴부인들은 먼저사게햇는데 어떤부인은 거짓으로 배에다 벼개를너코와서 먼저사려고 한일도 만헛서요。

우리집에서도 한사람이 그리케오래기다릴수가 업서서 우리어머니가 가섯다가 얼마후에내가가서 교대를하고 그다음엔내남동생들이 자꾸 번을 갈어서그 이튼날아침까지 채웟습니다。

팡을사는데

이것도 한주일에 한사람아페겨우 굶어죽지안흘만치 몃근씩 팝니다。

그러면 이것을가지고 한주일을 꼭채워먹어야지 배가고프다고 조금먹혀이라도 더먹으면그 담엔 굶는수밧게업습니다 혹부모형제나 친척에 집에가서 저녁을 먹을시간까지잇게될경우엔 제가먹을 팡은가지고갑니다。그집에도 제가먹을것뿐이니 딴사람이가서 한쪽이라도 먹을수업지안습니까

빼터가떠러저

보통사람은 빼터어더먹기가참 힘들엇습니다。여북해야 각음식 요리집에서 먹고난음식그릇을튀설거지할때 그설거지물에뜬 기름을 버리지안코 전부 기름만 먼저것습니다

이것을 만히모아가지고 다시 여러가지로 불결한것은 빼고새 빼터를 만들어썻습니다。

우유한방울

지금도 독일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그병을 그대로두지안습니다。반드시 물을조금부어흔들어 따러서 먹거나 하다못해화분에 라도주고 또대개는 커피를부어서 놀려먹으면 우유한방울도병에부터잇지 안습니다。

금가티귀한종이

세계대전때 우리는 종이를조금도 버려보지못햇서요 무슨더러운 종이라도 물을무처 한군데 뭉처뒷습니다。

그러다음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를하면 여간잘붓는게아닙니다。

발을벗은채

애들은 최다발을벗고잇섯서요。그리고 어른들도 밋바닥은나무요、우에는헝겁으로처럼한줄노 끈을햇는데그것도가죽 이아니요。종이엿습니다。양말은 대개벗고잇섯지오。

종이옷입고

우리도 종이옷을 입엇서요。어떠케만흔것이엿던지 지금내가 알수업스나 지금여러분이 인조견을 섞어입는것은 참호사입니다。아마그때부터 독일서인조견을만들어냇것갓습니다。

전기

여기서는 대개밤에 전기ㅅ불을켜고 자는데 그거웨 그럽니까 원 드군요。밤을테여서 그아까운 전기를 쓰니 여간아까운게 아닙니다。밤엔끄고자야지요。내가돈을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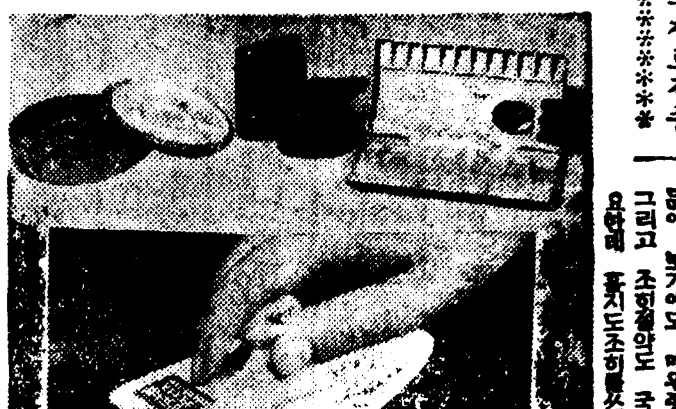
노인

노인는애기들 애기젓멕이 어머니들 참배가고파하는모양은 그때 우리들께도 여간슬프지안헛서요

나는 우리조선가정부인들께꼭 하고십흔말은 이제아프로 얼마나무서운 경제적 고난이닥처올지모르는데 지금부터 애끼지안흐면 어찌할까하고 내어려서그무서던일을 생각하고는 몸서리를 치지안흘수업습니다。

전쟁이란 경제적으로 참무서운것입니다 지금부터 독일이야기를 거울삼어 자꾸애끼십시오 요즘우리가정에선 더사치하고 더헤푸게쓰는것가태요。

갑싸고빗갈고흔 문방구대용품
세루로이드제로각종



대용품경시대입니다 휘용품 문방구도여러가지로 새로나온것이 만이나와잇습니다 그중에도 제일만흔것은 철필속품대신 세루로이드를쓰는 축、지협도모두 세루로이드재로 되여잇습니다 철필촉은 써서달어떠러지는것은 못쓰이고 그와에는 반드시철이아니래도 조키때문에 이번 새로히 국산품으로 이생겨낫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을 이쁘게채색한 세루로이드를 쓰기로되엇습니다 그다음은 붓씻는것、물통、수채(水彩)용파레트도 브리끼로 맹그럿던것을 세루로이드로 도기로맹근 철필촉 명되엇습니다 이것은 조히업서도 얼마던지 잉크를찍어드린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조금까그면 새롭은것가티 된답니다 (사진은 대용품으로된 문방구들)

제로 대용하기로 되엇습니다 어것은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물을너허두어도 녹슬염려가업스며 뭇가튼것、파란것、하얀것등 어떤빗갈을 쓰기때문에 보기에도 매우좃습니다 그리고 조히절약도 국책상필요한때 조히도조히를쓰지안코

어찌하리까

부모님소원대로 마음업는결혼을하리까

【問】 저는지금 이십일세되는 모전문학교명학년생입니다 원래에는 육십이넘으신 아버지가계시어서 벌써부터 안날을생각하시고 어서며느리를 어드서야하시겟다고 제가 중학교때부터 가지가지로 졸르시곤햇습니다 그러서 방학때에도 반드시고향에가서 양친을 반가히뵈여야할줄알면서도 결혼에 시달릴생각을하면 못견디게 우울해졋습니다 그러데금번봄방학을전후해서는 아주 아버지께서도 더욱강경해지시여서 내가 전문학교에가겟거든 내청을드러주어야 하신다하시면서 저를 상당한학교에보내는 결혼조건으로 장가를들라는것입니다

원래 그러케 강한의지를가지지못한저인지라 더군다나 공부하고시픈생각이간절하여 학교에 입학하면 결혼한다고 (졸업한후) 오늘까지 지내왓는데 요새는갑싹결혼에대한 아버지의 소청이매일하시고 어저께는너와일생을가티할 배필을 구해노핫스니 불일래로 시골로 내려오라고하시면서 여비까지 보내시엿습니다 다 이러케되고보니 외독자인저로서는 이러케간절히 요구하는 아버지의소원을 거절해가면서까지 공부를 계속해야할런지 요새는 주야로 이것때문에 머리를앓고 공부에대해도 등한해집니다 그러라고 공부가 실타는것도아니고 더군다나 결혼할의사는 전연업습니다 부모님의소원을 드러야할까요?

부모를위해서하는 결혼은결혼이아니다

李泰俊

【答】부모를위하여 결혼이란우선효도의 방법은 될는지모르나 결혼은 아닙니다。그러므로 공부하는편을 취하십시요。현재로는 부모님께불순이될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편이 멀리로는 효도하는것도됩니다。자녀가 발전하고 향상하는것은 부모로써도 가장큰 영광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하는결혼은 당신한사람만이 희생이아닙니다。당신부모님파는 아무상관도업는어떤 여성하나를 일생을불행 처주기쉬운 모험인것을 기억하서야합니다

물건너 이야기

영국부인의무모주의

【倫敦發同盟郵信】최근영국에는 모자를 안쓴『노-햇트』부인이 굉장히 늘어가기때문에 모자상점에서는 큰타격을밧고 잇는데 이때문에 모자상점에서는 부인이모자를 안쓰면 머리카락이 나빠지고또 어때문에 늘머리를 손질해야된다 그러므로 모자를 쓰는편이 훨신경제적이다 라고여설하고 엇더고합니다 그러치만 모자장사의 말만듣어도안될일이라고하야 론돈의유명한 신문『데일리·헤랄드』의기자가 모자안쓰는 여자들을붓잡고 의견을물엇더니 다음과가티 대답햇습니다

∥지-나、키노치∥양- 남자들두 모자안쓰는게 편한걸요 나무오년에 모자풍이잇섯는데 그때도 미장원에 내는돈은 모자한스-가차 조금도 달르지안허요

∥빵·볼른∥양-(성형시) ∥요새모자는 어상한것들이에요 나는 내머리의 자연미를 사랑합니다。

長篇探偵小說 魔人 (七)

金來成 作
崔根培 畫

寫眞속의魔女(四)

그처럼 한청의 친의(親意)조차 보이지안코 냉정하게 잡아떼는 남수의말에 늙은황세민교장은 다시 뒤리고 입을 떼일수가 업섯다。

『유감입니다。』

여태아첫던 오상억이가 으슥히 황교장을 위로하엿다。

『형수잇습니까。혜천을 폐교할수밧게 다른도리가업지요。』

그때 남수는 팔뚝시게를 드려다보며

『그러데 오군、마침 잘왓네。』하고 말머리를 돌린다。

『어쨋서?……』

『유불란씨 자네에게 한가지 보여줄물건을 발견하엿다는 말이야。』

『뭔?』

오상억과 함께 유불란、정란은 몸이모두 상반신을 테-블위로 내밀엇다。

남수가 대체 무엇을 가지고그러케 흥분햇던고?……사람들은 일단 주의되엇던 남수의 이야기가 다시 이여지는것을 기뻐하엿다。

『대체 뭐길래 그러케……?』

은봉은 대단히 아라끼운 모양이다。

『이것을 보십쇼!』

남수는 그때 포켓트에서수첩을 끄내어들더니 그수첩사이에 끼어잇던한장의 사진─명함형의 조그마한 사진을 끄내어 테-블우에 노핫다。

『이사진을 자세히 드려다 보십쇼!』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사진우로 쏠린다。그러나 황세민 교장만은 아모런 흥미도 느끼지안는듯이 멍하니 흥장바크를 내다볼뿐이다。메교당할 혜천의 최후를 황교장은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진을 드려다보자 마자─

『이것이 웬거요?』

『어디서 낫서요?』

『대체 이 사진을 어디서……?』

하고 저마다 물어보는것이다

그것은 머리를 길게 따느린 시골처녀의 상반신이엇다。얼굴이 갸름하고 눈섭이 길고─

그러나 상당히 오랜 사진임에 틀림이 업는것은 사진비치 부혀케 퇴색한것을 보든라도 넉넉히 짐작할수가 잇섯다。

저번날밤─복수귀 해월이가 백영호씨를 죽이던날 밤 이층 미술전수집에서 어든 사진─조그마한『로켓트』에 들어잇던 그사진과 똑가튼 인물이 아닌가。

『응─』

유불란은 사진을 손에 들고

『적어도 이십년전、아니 근삼십년전에 박은 사진이다。나이는 열아홉 아니면 스물가량─』

『그럿습니다。지금 임정부가 지고 잇지만 저번 수집실에서 어든 사진도 이것과 똑가튼 사진이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어드셧서요?』

은봉은 복수귀해월의 출현을볼 연듯 예기함인지 입술을바르르 떨면서 남수의 눈동자를 매섭게 처다보앗다。

『오빠 대관절 이것이 어디서 낫수?』

정란도 무서운 모양이다。

그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황세민교장도 문제의 사진을 목을 느려 넘겨다보앗다。

그러나 그순간─다른사람은 모르리라。유불란만은 덤석하고 넘겨다보는 황세민교장의 얼굴에 이상한 충동의비치 일시 떠올랏다 사라지는것을 눈치빠르게 보앗던것이다。

허나 물론 모른척하는 유불란이다。

『어디서 주섯는지 오빠、빨리 이야길좀 해봐요! 왜그리 자코만 잇는거요?』

그러나 남수는 무엇인가 이야길 하려다가는 가끔 입을 꽉 깨물어버리곤하는것이엇다。

『빨군 이야길 해보게나! 어디서 주섯는지?……그리고 군은 이 사진이 누군질 알고 잇다는 말인가?』

하고 캐뭇는 오상억의 말에

『어디서 주섯는지 미안하지만은 이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할수는 업네。그리고 이사진이 누군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그러나 사흘후면 이사진이 누군가를 알수가 잇슬것이다。사흘후 내가 다시 여행으로 돌아오는날 적어도 이사건에 관한 비밀의 절반은 해결될것이라 밋네。』

그리고 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러면 오군─특히 유불란씨! 제가 돌아오는날 까지 은봉씨와 정란을 잘 돌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는 차와한 거름으로 떡 여나갓다。

女性홀몬 オバホルモン 에 중년부인 과 월경불순

月經이不順

하면 항상 골치가아프고 밤잠을 못자며 허리와역개가아프고 氣分이 沈鬱할뿐아니라 몸이勞困하야 모든일에 실증이나며 口味가 떠러지고 엇질엇질하며 젓이 잘나지를않음니다。

이러한 모든症勢는 女性에게獨特한 卵胞(女性)홀몬의不足으로 생기는것이므로『오바호르몬』을 補給하시면 月經이 順調롭게되며 特히 中年婦人이使用하면 性機能의 老衰現象을 豫防 恢復식힐수잇스며 몸이健康해짐니다。

錠劑(五百單位) 三○錠(一圓六○) 五○錠(二圓五○) 一○○錠(四圓三○) 三○○錠(一○圓)
(百單位) 五○錠(一圓五○) 一○○錠(二圓七○)
이外에散藥도잇습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ノ一〇
製造元 川崎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武田發賣品

39(1.360)

レートー・コールドクレーム
레ー또ー코ー루도구레ー무

이러케다르다

使用한前後는

一、더러운皮膚 → 참으로깨끗하게洗顔된다
二、결꼬러운거친皮膚 → 보드러웁고潤澤해진다
三、잔주름만흔皮膚 → 彈力과고운애리를가지게된다
四、脂肪性의皮膚 → 餘分의脂肪을除去、健康하게된다
五、粉이먹지안는皮膚 → 化粧이곱게되는조흔皮膚가된다

眞 좀乳化라는 歐米에도업는世界에처음發見된 獨特한方法으로製造되는 レートーコールド는 乳化가 十倍以上이나 完全하고、바르며는 瞬間으로해저스스로皮下에녹아드러갑니다!

原 料는 從來의것과 는전혀다른眞貴한것뿐입니다。潛在乳化力이라는 高貴한 科學作用으로 毛孔의深部의 더러운것을 깨끗이除去하고 맑러온부터淸淨無垢한 皮膚를만듭니다!

점 어지는榮養素가 豊富하게包含되여잇스므로 쓰신直後、皮膚는 비단결가티 아름다운 빗깔잇는 皮膚가됩니다!

古文學의 一受難

金台俊氏의 近著麗謠註釋

◇ 梁柱東

또 原文을 改竄한 實例—
同歌 四月條의 原文은 分明히
四月아니니자 오실셔 곳고리새여
인데 氏는 또「아니니자」를「아니니저」로 要改竄하엿스니，생각건대 氏는 의 古語法「니지」를 알기쉬운 現代語「니저」로 原文을 고친것이다！이러듯 國文古時에 古文原文을 自己가 알수잇는쉬운 語로 任意改之하여노코 註釋을 加하는 이著者의 慣用手段이나 예부진 披見者는 古文學自體이다。毋論 여기는「니지」가 옳다「니지」는「닞+이」、「닞」(忘)의 副詞形이다。「홀리」「어지」「니지나」……
同歌 十一月條에는

原文

숨아 ᄉ라온뎌 고우닙 스싀옴 녈셔
란 一行이 잇다。氏의 註에 依하면
숨아ᄉ라온뎌……숨과
ᄉ라온뎌……나란다
스싀옴……생각하면서 보면서
「호올」이 어찌하여 副詞이며「ᄉ라온」이 어찌하여「나란다」며，「스싀옴」이 또 어찌하여 생각하며보면인가。이러한解釋은 도대체 自己臆測以外 [illegible]「기音사」「미寧은듸사」하는 抽象名詞(이말에對한 根本的考察은前揭「麗謠箋注」第十號 拙稿參照)요，「라온」은「보드라오」等의「라온」[illegible]「ᄉ라온뎌」도[illegible] 흠이로구나」의 뜻이다「스싀옴」이「스싀로」(自)란

副詞

副詞「스싀」에 添尾辭의 音便形「옴」을 加한것

[illegible]

處客

하라도 十年의 [illegible] 歌만 完全히 [illegible] 天下太平 [illegible]

佛典

는 또 [illegible] 그러타 佛典이 크게 必要하고 [illegible]「鄭瓜亭曲」을 氏는 全然 理解치 못하엿는데，그中에「엉터리」이니 무에니 하는말들은 氏에게全

珍釋

이만아 前記「[illegible]」云云 바로미레 [illegible] 다 佛典、[illegible] 氏의 [illegible] 文知識은 [illegible] 라原文으로 氏는「以是人生前不語」로 例에依하여 安放하여노코는 그註에曰「사람이 이른부터 때한말이 업게되니。」！하

[illegible]

文藝時評 (1)

批評과 批評精神

許 俊

批評은 價値의 判斷이라 한다。

辨別

그러므로 力만 잇는者면 木手의 만든 한개의 木工品이나 저 숨넘어로보히는 한개의 까치둥지에 대하여 그所在와 效用을 判斷하듯이 文學作品에 대하여서도 評家는 그社會的所在와 價値를 可히 判斷決定할것이오 作家를 指導할수도잇슬것이라한다

그리고 事物의 本質的인것과 非本質的인것 合理的인것과 非合理的인것 必然的인것과 偶然的인것을 가려내는 어려운일도 사람이 가지는 辨別力이 擔當하는것임을 우리도 짐작못할것은 업다。

허지만 아무리 本質的인것 合理的인것 必然的인것을 發見하는힘이 評家에게 必要한것이라 하드래도 보히는것마다 맛나는것마다가 오로지 批評의 對象으로 재여오지안흘것만은 事實이다。

角度

저 숨넘어로 보히는 까치둥지하나가 作品에 取扱되는 境遇를 생각하드래도 이둥지의가진여러가지性質이 여러가지로 作家의눈에 辨別되지못할것은아니나 이 本質的으로보여 러가지觀點이 다 作家에게 所用되는때보다도 도리혀자기가 볼려고하던 一小部分에 關心하고 보앗다함이 옳을때가 만흘것이다。

그냥 보히는것이아니라 제것을 發見하기위하여 보는것이며 自己本來의經驗이 要求하는대로보는것이며 그러므로 모-든것은 選擇하여보히는것이다。

大體 文學作品을 再構成된現實이라고도하고 더正確히는 再發見된素材라하함은 무엇을 말함일까。외 그번式 뒤집는것이며 무엇으로 도번式 뒤집는것일까—말하자면 이 제것을 제本來의經驗이 要求하는것이며 또한번은 自己本來의經驗을가지고 發見한것을 選擇하여 世上에 내보내되

作家

로부터 完全히 獨立한存在의 運命을 지니어 보내기 위하여뒤집는것이다。

한作家의 안에 主體的인것과 客體的인것이 同時에 辨證法的으로도 內在해잇다할도 이것의根本을 말한것일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普通으로 이르는바 하나는 內容的인것이오 하나는 方法的인것인지도 모른다。

허지만 어쨋든이런것을 한作家의안에 不卽不離의關係로 그容貌와性格을 무러드리지안코 두게하는것이 文學에잇서서 文學精神 或은 批評精神이라하는것일것은 말할것도업다。

이文學精神 或은 批評精神이라할것이 무슨智識이나 무슨科學이니가아니오 한作家가 가지고나오고 그것을가지고 살어나오는 그의本來의 經驗을가지고 自己生命과 世上에交涉하는 根本的인 態度에 지나지안는것을 우리는 알必要가잇다。

오늘날처럼 所謂 知識과

科學

에 惡癖(！)을 밧지 못하엿든 먼 우리들의祖上藝術에우리가 보밧지못할무엇이 잇슬수잇다는것도 그들이 오늘날우리들처럼 所謂知識과科學을 通信하고 그것을 支柱로하고 그것을 自己네의 寶물로 알지못하엿다는 그런 [illegible] 만가지고 自己네의 生活과運命을擬視하여왓던것이 아니엇슬까。

科學이니 非科學性이니하는것의 同意語로밧거나 아니아는지는것이 實際的인것이니 浪漫的인것이니가 實은 한가지精神의兩面이엇다는것을 요즘 發見하게되는것이라면 그것은 그만큼 이世代의批評精神이 苛酷하고眞實하여젓다는것을 말함에不過한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所謂科學性이란것의 또는 自己의

存在

[illegible] 업는 知識이란것의 [illegible] 處所에到達한 悲慘한 부그러운 자기存在를 嚴肅하지안흘수업게된것이다。

그리고 이런孤獨한 處所에서야만 그는「지이드」가 指示하엿다는 그러한惡魔의協力을 必要한것이엇다。

나를 所謂 知識의溫室도 科學의堡壘도 다 업서진 無際限한 荒原한 環境의壘로 [illegible]하는이 惡魔를 나는 分裂의天才라 命名하여도 조흘것인가。

眞一「죠이스」의 말하는것처럼 文學이 藝術部門中의 가장精神的인것이라면 그것은 이藝術의 이러한生成過程과 그存立의運命

講座 鑑賞法

둘째, 韻律, 우리말의 長短音은 저기 分揀할수 잇스나 高低音, 强弱音따위는 어느 一部의地方을 除하고는 거의다 一致하게 내다 고할수업다。그런즉 漢詩나 英詩처럼 平仄、抑揚을 본다는것은 우리詩歌로서는 전연 不可能한 事實이요 또는 韻字가튼것도 달릴것이 업다。그러라고 一種 韻律이 업는것이아니다。漢詩 英詩가티 規則的으로 되지는못하더라도 詩歌는 散文보다는 달리 한韻律을가지고잇다

（ㄱ）서리친 새벽바람 몰고가는 저기러기

（ㄴ）그밤에 울어엮지 이야기를 하더니라

이두句節이 그字數나 音節數는 서로 가튼되 （ㄱ）은 （ㄴ）보다 韻律이 다르지 안흔가。그韻律로보아도 어느것이 詩歌이고 散文인것을 짐작할수잇지 안흔가。그러나 우리는 詩歌를지을때 自由로 그韻律을 쓸수잇다。정말 저의自然한 그소리를 낼수잇다。中國에서 自由詩를짓고 歐米詩人이 自由詩律을 自唱한것도 따연저의 自然한소리를 내자는것이다。그소리는 그저 內容이 아니고 心琴이 울리어 나오는 소리다。詩人이 아니고는 到底히 낼수업는소리다

셋째, 創作。

(時調科)……②

形式內容

李秉岐

처음은 詩帖을보고 의혀야 겟지마는 나종에는 詩帖을 아니보고도 能히 써야한다 그리고 詩帖의字樣따는 다른 獨特한 自己의詩歌를 이루어야 하겟다。王羲之의글부터 그만흔 有名한 筆家들이 서로 꼭가튼 글을 쓴이는 하나도업다。그는 제個性을 제마다 發揮함이다 가튼 蘭亭帖을보고 歐陽詢、褚遂良은 歐陽詢의 體、褚遂良의 體가 나라나고 秋史의筆에는 金石五千卷 기운이 울옥이되어서 秋史만은 秋史밖에는 다시 名人이 업섯다。詩歌의創作도 이러한것이다 創作을할때에는 名詩名句를 외고 그걸 消化도하겟지마는 준더 詞語가 기퍼 妙理를 어드면 自家의 나아갈 새境地를 開拓하게될것이다。이地境에 이르고보면 그內容을따라 形式을 合一妥當하게 골라 쓸수잇다。가령 한생각을 나타내랼때 먼저 어걸 어떠케하여야 할가하는 그形式부터를 얻주마련하여야겟다。이마련이미처 못되엿을때에는 몃時間 몃날이라도 白紙만 펴노코 우두커니 잇는것이다 겨우 그影子나 輪廓이 心眼에떠볼면 비로소 붓대를 울죽이기 시작하리라。그건 紙面에 그려어지기전에 벌써形成된것이다。그形成의形式을 마련할때 自己의意識에再現되는 그어느 合當한形式—旣成形式등이 잇슬것이다。旣成形式을 쓴다고 創作이하되리는 업다。唐의李杜가 쓴것이고 宋의 프러차ー 漢魏古詩의形式을 쓴詩人도 가튼詩人도 日本의短歌를조아하고 그비슷한 短形의詩를 만히 지키도 하엿스나 다不朽의 훌륭한創作品들을 전하는것이다。

그런데 時調를 鑑賞하자면 自己의말한 그字數, 韻律, 創作의異同을 짐작한후 그作品을 보고는 그一字一句、一章을 어떠케 적엇을가？全體는 무엇을 적엇을까를 仔細히檢討해보아야한다 그리고저하면 自己의色眼鏡을 벗고 가장 公正素直한마음으로 대하며 그作家가 作品을 내던 그때의경계까지라도 울어가보아야 한다 단지 活字만 보고 얼른하보로 斷定을 하고 버려둘간 아니다。옛날 어느監司가 自己의 아들을 데리고 잇스며 글을 가르치엇는데 하로는 찰한자(寒)를 내주며글을 올하나 지어라하엿다。그아이는 한참생각다가「兩腳寒」이라는 글을 지어다。監司는 이글을보고 그뜻을 모르게다고하는데 그여 대이던 冊室이 보고는「두 짝이 붙고도 차더린」하는 뜻을 좋엿다 한다 監司가 모르는것은 監司의경계로만 본것이고 冊室은 그렇다 보는 것은 그아이의 경계로 보아주는것이다 남의作品을 볼 때에는 監司가 되지말고 冊室가티 되어야 할것이다 俗諺의「寡婦의설음은 寡婦가안다」는것도 이런걸 이르는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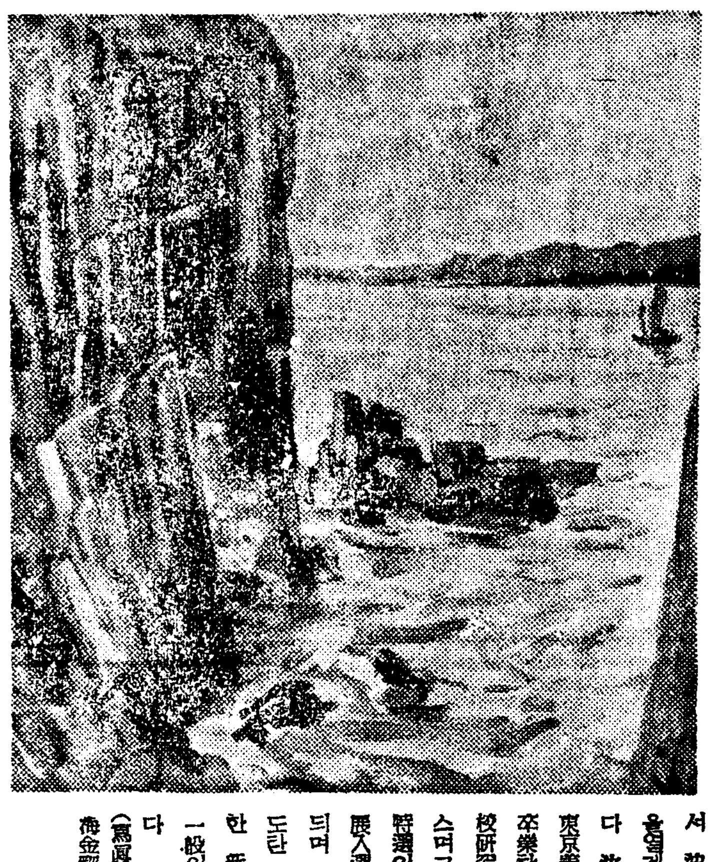
從來 전하는 詩歌를 보면 대개는自己의 眞實熱烈한 情感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漢文典故의事物科目을摸倣한것이다 이는詩歌本意의作品이라기보다 詩歌의形式을한方便, 娛樂、遊戲로할 고드는質具처럼 使用한것이다 그중 몇가지 例를들면

남이 害할지라도 나는 아니 거를것이
참으면 德이오 겨르면 가튼러니
굴흠이 제게 잇거니 겨를줄이 잇스랴 —李後白

는 하訓戒다 이런 訓戒—勸善懲惡하는 말을 보자면 詩歌보다도 聖經賢傳, 其他 善行錄등이 더나흘것이다。

漢詩募集

題 憫農
押韻 冬韻部 …(古詩隨意)…
收稿期限 六月十五日
—(薄謝進呈)—



▲沈亨求氏「個人展」

오는六月四日부터 開催되는 朝鮮美展에 出品하려 方今入京中인 沈亨求氏는 六月一日부터 四日間 和信七層「갤러리ー」에서 油畫個人展을 열게되엇다한다 沈亨求氏는 東京美術學校를 卒業하고 또同校研究科를나와 스며그동안美展特選이 三回、文展入選이二回나되며「總督賞」도탄 淸新한畫家로 新人으로서 한 一般의期待가크다 (寫眞은 沈氏와 海金剛스켓치)

BOUQUET of LIFE

GIFT

Sailor: "Honey, I've brought something for the one I love best. Guest what?"

"A box of cigars."

船人——〃여보(애인에게대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사람에게 주려구 무얼가지고왓소。무언지아라마치겟소？

——여송연한상자지 뭐

죠이스의 新作

十六年間苦心作

오래동안執筆中인 젬스·죠이스의 新作小說의 表題와 出版期日이 결정되엇다 出版所인 米國의〃바이킹·프레쓰〃에서 發表되엇는데 그에 依하면 新作表題는〃피네간스·웨이크〃로 決定되엇다 이作品은「죠이스」가「율리시—즈」를 發表한以來 實로 十六年이라는 긴時日을 苦心推敲한 것을 그동안「進捗中의作品」이라는 假題로 이따금 雜誌等에 斷片으로 그作品의 片鱗을 집작해왓을따름이엇다「죠이스」는 이 假題를 그대로 이번 作品의 新題로할것을 고대하엿다 한 것은 그동안「進捗中의作品」이란 假題로 [illegible] 作品의 前述과 가튼 新作으로 發表되엇다

더욱이 新作은 米國과 同時에 英國의「페-바·앤드·페-바」社에서도 至今쯤 一齊히 普及版으로 發表할모양이데 部의 高價로 이외에 一部二十五冊의 自署入豪華版을 三百五十部限定出版되리라한다

海外文藝点信

★孤獨의 詩人「마리아·릴케」의 詩集을 英譯으로해서「노-돈」社에서 出版키로되엇다

★世界的 畫家「피카소」의 無名時代부터의 友人이엿던「가-트루-드·스타인」女史가「피카소」論을 著述하엿다 女史의「피카소」論은 그림그리는것은 言說는것이라는 獨自的立場에서 쓴 것이라고한다

★英國의 有名한 文庫「에브리맨·라이브러리」에 佛蘭西의大小說家「스탕달」의「赤과黑」을 새로히 編入시켯다 譯者로는「프루-스트」英譯者로 有名한「스코트·몽크리에-프」다。

新刊紹介

▲朝鮮商工獎勵館報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寶話 六月號 發行所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鑛業時代社出版部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二錢

▲朝鮮銀行統計月報 三月分 發行所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向上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澁谷區千駄ヶ谷四丁目六六八 修養團 振替東京一〇九〇三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二錢

粉이나 臙脂로 化粧함도 조치마는 眞正한 女性美의 創造는 決코 그것만으로 될수없다

建築에基礎工事가所重한것가치지금두려운婦人病을克服하야몸의內部工作을整調하지안흐면당신의青春은永久히죽엄이다

大自然이人類에게준 貴重한, 지금世界의學者가모두 그藥效를讚歎하는 和漢藥. 여기어야말로一時的, 局部的效果의單一한對症劑와달러서 內服하야腸胃作用에依하야 綜合作用에依하야 病原에서부터治療되므로 眞로有名한藥이다。

藥은流行品이아니다

中將湯은예전부터 藥의方法을取하고잇지마는이것은 交感한和漢藥의 主成分을조금도變化시키지안코 內服後腸內에서 血行을旺盛케하고 汚血을排除하여 婦人病을根本에서治療하고 月經不順, 上氣頭痛, 腰痛, 히스테리, 神經衰弱等 이것과併發하는苦痛을除去하고 얼굴에도灼然한健康色을 빛치게하야眞正한女性美를體內에서 끄러올니게한다

(價) ·55 1·00 2·00 3·00 5·00 10·00

各地藥店에有함

婦人良藥 中將湯

本舖 津村順天堂

요새 흔하게 작구나오는 얼골을 곱게한다고하는 類의것과 잘比較해주십시요。

普通藥이 아닌것 普通化粧品이 아닌것 을곳아시게됩니다。

高山유끼와리藥草의싱싱한精分이이러케도얼골에 조흔가하고놀라시게됩니다。

여드름에 沐浴後에
뽀로지에 化粧바탕에
脂肪顔에 面刀後에

三十五錢 五十錢 一圓

데파ー트 藥店 化粧品店 에有함

東京·高輪 原澤合名會社

005125

ニキビ 여드름 개기름빼는

顔劑 ユキワリソ 유끼와리소민

淋病 第二期的發明完成에依한 最高級治療劑

強力ベリール錠 강력베리-루

強利比見

新發賣

淋疾化學治療劑パラアミノベンツオールズルフオンアミド가發表된當時는淋疾治療의決定劑인것가티宣傳되엿스나諸權威者에依한臨床實驗의結果는幾多의缺陷이잇서서더욱研究할餘地가잇슴을發表하게되엿습니다

一、慢性淋疾에對하야其效果에不確이잇는點

一、尿道淋絲의消失을期待키어려운點

一、食慾不振、嘔吐感、全身倦怠、發疹、心臟衰弱等의副作用을伴하는點입니다

可驚할化學의進步

右에焦하야更히熱心히研究가繼續되야마침내發明力은以前에數倍나되며더욱이頑症慢性淋疾까지徹底히根治시키고도副作用업는二基性ズルフオンアミド劑가完成되엿습니다 強力ベリール는이高級化學劑를主劑로하고更히他의藥劑를巧妙하게配劑한것으로서 藥物相乘作用에依한其效果의累積에依하야急性慢性淋疾의徹底的根治는勿論이고 가장難治라고하는婦人淋疾도短期에全癒시키는最高級의理想的化學治淋劑로서이제야말로淋疾治療上急速한第二期的躍進을보게되엿습니다

決定的止膿止痛消炎

淋病에對한痛切한要求는治療期間의短縮입니다。此點強力ベリール는注射洗滌의必要가업고其藥效는血液의循環을利用하야全身의淋毒菌을모조리除去하고六時間後에는尿中에反應이나타나며十八時間後에는其濃度가最高頂에達하야連續的으로病巣深層部의淋菌을殺菌全滅시켜서其結果는

一、服藥翌日부터尿는淸澄케된다

二、二日째부터止膿、止痛、消炎과가장快速確實한治療經過를거친다는것이報告되고잇다

三、惡疾慢性症에對하야猛烈한突擊殺菌作用을發揮하는故로頑固性淋疾에對하여서도實로敏速的確히短期治療의目的을達합니다

玆에가장注意할것은가튼化學製劑로서도그化學的純粹度의如何에따라效果도左右되고副作用의有無도亦是同一하므로製劑의精選은가장慎重하지안흐면안됩니다 ベリール는現代治淋劑中가장卓越한理想的製劑이므로敢히推獎하는바입니다

新聞名記入御申込次第【文獻無料進呈】

【適應症】急性淋疾·慢性淋疾·前立腺炎·副睾丸炎·膀胱炎·子宮內膜炎·尿道狹窄·丹毒·敗血炎

包裝 五〇錠 一〇〇錠 三〇〇錠

本舖 竹村製劑所 大阪市南久太郎町 振替大阪三六〇番

市場販賣硫安

三萬一千噸의不足豫想으로 産米增産에影響至大

本肥料年度도 今後二個月밧게는 남지안혓는데 本年度의 朝鮮의 硫安配給計畫은 四十四萬七千噸이엇는데 朝窒의水害 滿化의渴水에 依하야 供給減을招來하야 結局 年度內의 配給實績은 四十一萬六千噸으로 差引 三萬一千噸의 不足이다

그리고 滿化品의 農會納入이 不能케 되엿다신에 朝窒物의 配定을 增加하엿기때문에 農會와 金聯과는 豫定대로 配給을 바덧스나 三萬一千噸의不足은 大略 市販品이 負擔케되므로 市場의 配給難의 原因이 되어잇다 詳細한數字를 드러보면 아래와갓다 (單位噸)

一、製造者別

	豫定	實績
朝窒	三三〇,〇〇〇	三一〇,〇〇〇
日本硫安	五〇,〇〇〇	五〇,〇〇〇
滿化	六七,〇〇〇	五六,〇〇〇
合計	四四七,〇〇〇	四一六,〇〇〇

二、配給者別

	豫定	實績
▲農會		
朝窒物	八〇,〇〇〇	九四,〇〇〇
日本硫安	三〇,〇〇〇	三〇,〇〇〇
滿洲物	六〇,〇〇〇	四六,〇〇〇
合計	一七〇,〇〇〇	一七〇,〇〇〇
▲金聯		
朝窒物	四〇,〇〇〇	四〇,〇〇〇
▲市販		
朝窒物	二〇〇,〇〇〇	一七九,〇〇〇
日本硫安	二〇,〇〇〇	二〇,〇〇〇
滿洲物	一七,〇〇〇	七,〇〇〇
合計	二三七,〇〇〇	二〇六,〇〇〇
總計	四四七,〇〇〇	四一六,〇〇〇

그리고 이外에配合肥料用으로서 朝窒로부터 三萬噸을追加供給하기로되엇는데 이것도 結局 二萬二千噸밧게는 供給되어잇지안타 一方朝鮮으로서는 今年度百廿萬石의 産米增産計畫을세우고잇스며 配合用의三萬噸追加도 [illegible] 되어잇스니 이치 硫安의供給不足은 産米增産計畫上에도 重大結果를招來할 憂慮가잇서 그善後策이 要望되어잇는데 이의對策으로서 [illegible] 品大量(七月末)中에서 朝鮮內의不足한 三萬一千噸을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이잇서 當局의 [illegible] 이要望되어이다

昭陽鑛業社長內定

台灣鑛山會社 常務取締役技師長 時津米七氏는 目下總督府에 認可出願中인 昭陽鑛業會社 社長에就任할 豫定인데 近近認可가잇슬모양으로 諸般準備次 來六月三日入京할 豫定이다 台灣의 親會社台陽鑛業會社는 二十五日에 定時總會를 開催하엿는데 同社經營의 金山은 台灣有數의 金鑛으로도 一日千噸處理의 設備를가지고 業績이 良好하야 前期二割配當을 하엿고 本期도 二割配當의 모양이라한다

畜産開發發起會

[illegible] 朝鮮畜産開發會社는 [illegible] 合倂에對한 業者側의 內諾을 得하엿스므로 今週中에 發起人會를開催하고 設立의 第一步를 踏出하리라한다

纖維研究會 二十四日結成

纖維關係에寄與할 總督府中央試驗所가 主體로되어 朝鮮의纖維研究者를한데뭉친 京城纖維研究會를結成키로되어 五月二十四日朝鮮纖物協會에서 第一會合을 열고 規約과役員을 選擧한結果 如左히決定하엿다

▲規約

一、本會는 京城纖維研究會라稱하고 事務所를社團法人朝鮮纖物協會內에置함

二、目的、本會는纖維工業에關한 研究를하고 其進步發達을圖함으로써 目的함

三、本會는 前項의研究를하는者로써組織함

四、本會의 經費는 財團法人朝鮮纖維協會로부터의 委託研究費其他收入으로써充함

▲役員

會長 山村中央試驗所長 幹事 樋口同所囑託

犧牲産業振興

轉換期에直面한不備缺陷除去코 工業協會 恒久策再檢討

犧牲産業振興은 工業能力의全幅的利用의見地에서도 자못重大하므로 朝鮮工業協會에서는 轉業對策實施의方策을 根本的으로 是正하여 地方廳、民間團體의連絡에依한 恒久策의確立을 焦燥하기로되엿다 時局産業振興에 直하여 工業能力의目標를 檢討케함에依하여 平戰兩時에 對應하는工業部門의推進力을期키하는 所謂産業界의 轉換期에 直面한 諸般의 不備缺陷을 根本的으로 除去하려는것이다 現在朝鮮의中小工業은 轉換力을가지면서 技術 專門知識 經營技術의缺如에 依하여 充分히主産能力을 發揮할수업는것으로 再整備에依하여 轉換期에直面해서 不動의態形을 確立하려는것이다 이에는指導助成機關의 渾然一體의 鞏硬對策이 必要하게되엿다

商工聯合總會 事業計畫決定

京城商工組合聯合會 第三回定期總會는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京城公會堂에서開催하고

一、昭和十三年度事業과決算報告
二、同上會務報告
三、昭和十四年度歲入歲出豫算과 事業計畫

을附議하야 異議업시可決하엿는데 事業計畫은 如左하다

一、年末大賣出 二、商品見本市 三、從業員修養講演會 四、巡回見本市 五、組合强化 助成 六、時局對應 研究座談會開催 七、內地視察員派遣

總會를終了後 第十回京城商品見本市記念表彰式을 擧行하엿다

六、七月民需 스파需給

─朝鮮分配定─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工業俱樂部에서 最後의纖維配給協議會를開催하고 六月分國內綿絲混紡絲『스파』『스파』絲 人絹絲七月分國內向스키毛絲及紡毛絲의 需給計劃을如左히發表하엿다(關係分)

昭和十四年六月度 民需用『스파』表

朝鮮 一千封度

六月分民需用『스파』絲 團體別配定百擔

七月分스키毛絲團體別配定 朝鮮 一萬五千封度

七月分紡毛絲團體別配定 一萬五封度

北鮮製紙『팔프』를 鐘紡工場에供給

人絹『스파』工場으로서 鐘紡의平壤工場에 [illegible]하야 大日本紡績津工場도 來七月부터 操業을開始하므로總督府에서는 그所要팔프는 朝鮮産팔프로서 充當코저 北鮮製紙製品의 供給에關하야 商工省과 折衝中이던바 于先鐘紡工場의 五、六月不足分은 暫定的으로 北鮮製紙에서 供給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雲母開發統制會社

朝鮮에잇서서의 雲母의全面的統制를 圖謀하기爲하야 總督府에서는 內地有力消費者를 招致하고 既報와가티 雲母統制會社의設立을 進行시키고잇는데 右會社의 內容은 大體如左하다고傳하고잇다 即

一、社名、朝鮮雲母開發會社(假稱)

一、事業、雲母의購入、販賣、鑛區의開設

一、資本金 百五十萬、

朝鮮産煙草 蒙疆으로輸出

朝鮮産煙草의 北中支進出에依하야 漸次衰微의狀態에잇든 英米트러스트는 最近에이르러 完全히 蒙疆地區에서 손을떼어 그結果로서 同地에는 煙草饑饉이 現來하엿스므로 專賣局에서는이의緩和를圖하는同時에 朝鮮産煙草의宣傳의 意味에서 今後每月四千梱乃至五千梱(八千萬本乃至一億本)을 輸出하기로되엇다한다

朝鮮化學認可內定

日曹의朝鮮進出第一步

朝鮮의豐富한 電力에 着眼한 日曹의 朝鮮進出第一步로서 注目되고잇는 朝鮮化學株式會社(資本金五千萬圓)는 總督府에對하야 正式設立認可申請을 提出하엿스므로 目下大藏、商工兩省과 協議中인데 어미認可하기로內定하고 平安北道에 建設豫定인 工場은 十四年度物動計畫에 包含된모양이다 同社는 十五年부터 十萬키로의 發電을 開始하는 鴨綠江水電에서 常時二萬七千키로를 受電하야 알미늄을 製造할 豫定이며 그 事業計畫은 十六年五千六百톤 十七年一萬톤이라한다

發明의必須要件

綜合力이强한實力과 不屈不撓의精神力

發明常識 ⑤

一〇 特許를엇는方法

發明考案을完成하얏드래도 어것을特許나 實用新案登錄等으로 어것을國家의原簿에登錄해두지 안흐면 獨占權을主張할수가업다 따라서特許를 어더두는것이 發明考案을特許 事業化할 때에잇서서는重大한要件이 된다

我國에서는 特許法第一條에 『新規의工業的發明을한者는 그 發明에對하야 特許를受함을得함』이라定하야잇고 物品에關한考案으로形狀, 構造, 주어마주는데 關係잇는것에는 實用新案法 第一條에 『物品에關하야 形狀, 構造또는 주어마주는데 關한實用잇는 新規의型의工業的考案을 한者는 그物品에對하야 實用新案登錄을 할을得함』이라고 定하야 잇서서 모두 最初의 出願者 또는 先願者인 發明者는 그사람에게 그發明考案에對한 獨占權을 附與하고 어것을 特許하기로 되어 잇스니까 누구든지 發明考案을完成한때에는 곳發明의 形式에依하야 一要點을 選擇하여 登錄出願 手續을 해둘것이오로 그것은 單只個人의 權利擁護일뿐아니라 重大한 發明인 때에는 對外的으로 國民의義務이기도하다

그리고 登錄出願의手續에對하여는 特許局은 無償으로一般에 그心得書를 分與하니까 郵稅三錢을 添附하여 要求하면 隨時交附를 受할수잇는것이다 또帝國發明協會와 各地支部에對하여 照會하면 懇切丁寧히 指導하여준다 發明協會는 單只登錄出願에關한 事項에限치안코 發明에關한 모든事項에는 可及的으로 指導해주는것이므로 發明考案에 뜻하는사람의 利用할만한 가장安心할수잇는 機關이다

一一 發明은專門家에만 限치안는다

發明의 廣義한意義가 技術的 或은 工業的方面의 新物品乃至 新方法의 案出이라하여 特殊한專門家가아니면 發明은決코 못한다는法이업다 勿論 恒常그關係部門에 關係하는 學者, 技術家乃至工業家는 그基礎智識과 經驗이 一般人에 比較하야 豐富하므로 第一로 有利한機會가만코 또 暗示에對하여 敏感하고 推理、想像이 學理에一致하며 實際的인데 놀라는것스나 發明의基礎인 注意의周到、觀察의 銳敏은 決코 專門家만의 獨占物이아니다 또同時에 往時에比較하여 科學的智識의 널리普及되어잇는 오늘날은 發明은 도리혀 職業의相違、社會階級의 差別을超越하야 널리 社會人의아페 開放되어잇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다

뿐만 아니라 發明自體가 社會日用上價值잇는것을 要件으로하고잇스니까 特定한 部門의 學者나 專門家는 往往이 려한것이 果然實社會에 어느程度의 價値가 잇는가에 對하여 注意하기때문에 그點으로도리혀 社會的利用價值를把握하고 따라서 어떤發明案出의 要求를 切實히 느끼는것이다 往時에 比較하여 科學的智識이 如何히 널리普及되어잇는가는 요지음의 少年學生들의 科學에 關한 讀誌가만흔 것으로 또는 科學關係의 雜誌가 아니라도 現代의 少年雜誌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를困難하게할만큼 未進된 科學에 關한 記事가만히 揭載되어 兒童이 도리혀 興味를가지고 읽고잇는 事實에 徵하여 首肯할만한 일이므로 教育에妨害되는 過度한工夫에 빠지지 안는限 少年의 科學에 對한 旺盛한 興味心은 適當히 어것을 滿足시키고 善導하는것이 終에는國民의 科學智識을 向上시킴에 잇서서 緊要한일이다 少年의 科學에對한 智識慾의旺盛은 少年이不遠한 將來에 社會의 重要한 分子가 되어 各方面에서 活躍할때에 依賴할 要素인 同時에 [illegible] 成人에게하는 獎勵와가티 等閑히할수업는일이다

一二 發明을뜻하는사람을 爲하야

發明考案은 元來學究的研究의所産이나 實際에徵하야보드래도 所謂大發明家는 모든것이 最高의專門敎育을 바든사람 뿐이아니다 世界의發明王인 에디슨翁의 少年時代는 그顯著한것이다 要컨대 發明考案을뜻하는사람에게 若干의基礎敎育이必要한은 絶對的條件이며 社會의狀況을 널리알고될수잇는대로 該博한智識을가질이 조흔것이므로 平素에關心을가지드래도 그方面의 智識을엇기爲하야 注意力과 觀察力의 涵養에 努力할것이다 特히그 智識은 現代의産業또는 文化에 貢獻할 發明의 大部分이 科學을 基礎로한것인以上 科學에關한것으로 어저서는안된다 또自己는 그것이如何히大發明, 新考案인것가티 생각하고잇서도 다른데서이미 完成한사람이잇는데에는 徒勞에歸할것이니까 따라서 不斷의注意에依하야 現在世界의 發明界의 狀況을 概略이라도 알어두도록 努力하지안흐면 안된다

物價 (三十日)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粉末配合 產卵雞用	一二五斤一袋	[illegible]
同 中雞用		[illegible]
同 雛用		[illegible]
同 成雞用三種配合粒餌 特上		[illegible]
初生雛用完全配合飼料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百匁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鴨卵	十羽	[illegible]
[illegible]	一斤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豚毛(原毛)	百斤	[illegible]
同(撰毛)	一斤	[illegible]
羽毛	一貫	[illegible]
[illegible]	一羽	[illegible]

▲農藥藥品

品名	單位	價格
硫酸니코틴	一封度	[illegible]
大豆가제인	(同)	[illegible]
데리스石鹼	五百瓦	[illegible]
마른일드볼도	二封度	[illegible]
除虫菊	一封度	[illegible]
펄리1푸렝%	一瓶	[illegible]
結晶硫酸銅	一〇〇斤	[illegible]
粉末(同)	(同)	[illegible]
生石灰	四貫	[illegible]
골드러푸	二百度	[illegible]
상게이粉狀테리스	一五〇瓦	[illegible]
驅虫用煙草粉	一貫	[illegible]
쿠레오소1트	一罐	[illegible]

(朝鮮醸業協會調査)

ナゴン 納言

帝國大學化學實驗室에서 研究完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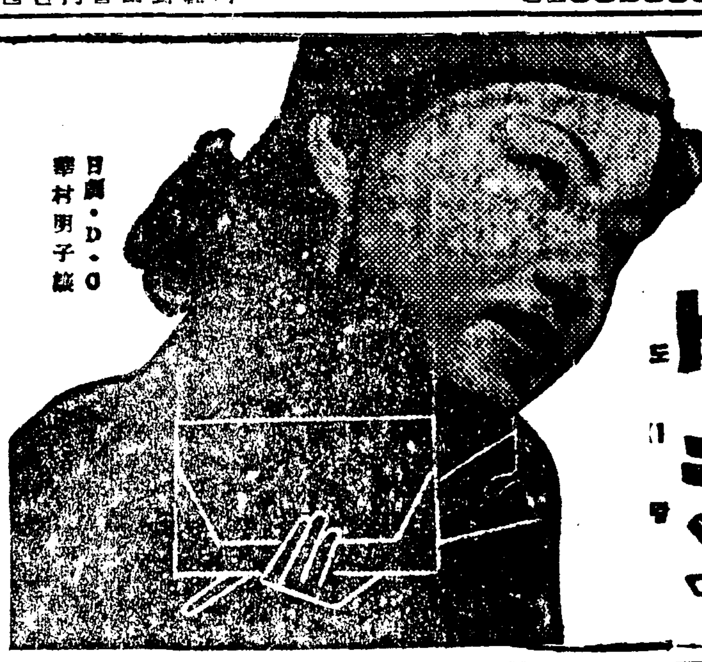
ナゴン은從來의것과는달니 新製法으로完全의하야 非常히衛生的으로進步改良되엿슴으로 오래使用해도

●빗이 力이 變하지안슴니다
●頭髮과頭皮에 害하지안슴니다
●頭髮이 안슴니다

그러고 簡單하야잘물드러지고 머리가부서지지안는 一生의 健康과毛髮을爲하야 一日이라도 빨리 ナゴン을愛用해주십시요

製法專賣特許 粉末一劑一品으로 물에녹여서곳드리는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定價四〇錢・六〇錢



ハンドバッグ化粧にほ

こぼれずお膝を汚さない

固形タンゴ ドーラン

大小二種

注射代用 內服殺菌劑

ピリパン錠

細菌性尿道疾患特히

急性 慢性 淋疾 腎盂炎 膀胱炎

今日 淋疾의化學的强力殺菌治療劑로서醫藥界의話題는빠리진系아조色素劑=ピリパン의出現입니다

ピリパン은從來의數多한內服治療劑와全然그趣意를달리한化學的色素製劑로서强力한深達性과獨自의殺菌作用을가지고頑固한淋菌이라도ピリパン의極히稀薄한溶液即二〇〇〇倍溶液에서廿分間에完全히死滅시킬수잇는것이立證되엿습니다

더욱이 ピリパン의特長으로서諸家의推奬되는點은尿路粘膜의炎症에鎭靜的으로作用하야出血又는排尿時의疼痛을最少限으로輕減할뿐아니라在來의治淋劑에는거이不可避라고하든胃障害其他副作用이업고連用함에도適當한故로淋疾과가튼長期의治療를要하는疾患에는最高度의治績이期待됩니다

治療에도…豫防에도…

一回 二錠

ピリパン은二、〇〇〇倍液에서淋菌을殺滅할수잇는故로ピリパン〇、六瓦(錠劑六個)를 一日에쓰시면一、二〇〇〇(一日尿量)尿가不絶히ピリパン의約二〇〇〇倍液으로保全하게되야尿路殺菌의目的을達할수잇슴。

三〇錠…一・六〇
一〇〇錠…四・五〇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皮膚內에病집을만드는虫을 죽이고아픔과가려운症을除去함

에 疥癬(옴) 頑癬 水蟲 白癬 濕疹

サルホール는다음과가튼 皮膚病에쓰시면 輕症은一-二回로 慢性症은三-四回바르면 大槪가렵症이업서지고 明快한氣分이납니다 몃번이고거듭하면黴菌이나 虫은全部死滅시켜 完全히治癒됩니다

濕疹 은 身體의어느곳에고나서 非常히搔痒한가렵症을가져옴으로, 글거쟁치면 그刺戟때문에지저지저하며水疱가생겨 다음에그水疱의內部가化膿하야 膿疱로되고, 딸라서 『瘡蓋(딱지)』가안는곳도 생깁니다。

疥癬 은 搔痒이甚하고 밤잘동안이더욱 甚합니다. 疥癬蟲이 皮膚에侵入하면 小丘疹의다음에 水疱가생겨 膿疱가됩니다。 特徵은 指의兩側, 指間의두틈사이, 腋, 陰部, 大腿의 內側面으로 글그면甚한 濕疹이되는일이 만습니다。

白癬 頑癬 이것들은 다同一한 黴菌에依하야 생기는것입니다。頭部에생긴것을白癬이라하고 七-八歲의兒童에 만합니다。其他의곳에생긴것이 頑癬인데, 主로陰毛, 後로는 睫毛, 眉毛例外로는 頭髮에도생깁니다。皮膚는極少한 灰白色의鱗屑에依하야덥히고, 毛髮은光澤이업서지며, 皮膚는붉어지고, 比較的徐徐히커지나 搔痒은 甚한것이므로 時時로 그때문에 濕疹을惹起하는일이잇습니다。

【用法】 用法은極簡單하야손끗에サルホール를붓처患部에문지르기만 하면그만입니다。

黃金色의芳香性의液이며 皮膚나 衣類를더럽피는일이업습니다。또塗布後速히氣分조케마르는 特長이잇습니다。

一〇瓦(三五錢) 二五瓦(五五錢) 一〇〇瓦(一圓六〇錢) 二五〇瓦、五〇〇瓦、一瓩

製造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武田發賣品

サルホール
사 루 호 루

教育界의喜消息

元山에第二中學校

有志懇談會서新設決議

發起人會組織、各委員을選定

【元山】원산의숙안 제이중학교 설립문제는 요즘 드디어 실현의 첫거름을내여디디게되엿다

원산의모모씨는 매년소학교를 나와서 갈곳이 없어 방황하는 학동들의 비참한처지를 목도하며 못하여 전에 모처상에서 비공식으로도 중학교를 설립하려는데 개체가 생긴다면 거액의기부를 하겟다는 말을 누설하엿스므로 이에 원산의중견층구락부인 대원구락부(大元俱樂部)에서는 그소식을 듯고모모씨와 직접절충한결과 모든 동락하엿다는바 그금액을 한하여서는 실로 십오만원정도의 거액에달한다한다 그구락부에서는 희음어더이것을 토대로원산의현안중학교설립문제를 해결코자하야

지난이십구일 오후다섯시 국태관(國泰館)내에 원산의각계인사삼십여명을 초대하고 「중학교설치유지간담회」를개최하엿다

이석상에서 대원구락부위원장 김상의(金相儀)씨의 인사와 아울러 간담회개최까지의 경과에대한 설명이잇슨후 좌장으로 남백우(南百祐)씨를 추천하고 간담한결과 만장일치로「원산의숙원인 중학교설립을위하여서는 적극매진하여 성공하자」는의견이 일치되어 즉석에서 그자리에모힌 인사로서 위선 중학교설립기성회발기인회를 조직하기로결의하엿다 그발기인씨명과 주비위원은 아래와갓다

發起人氏名 南百祐 安鼎錫 南觀熙 嚴永鎬 林虎英 羅光鱗 尹炳甲 金用斌 李相基 李鍾進 金正浩 李濟麟 李容錫 申泰今 洪鐘相 金濟昌 朴尙鎭 南命祐 金龍錫 宋寅台 徐鎭眞 金鎭保 李弘俊 劉勝 金利鉉 文武述 金景俊 申亨昌 嚴鍾俊 韓鍾洙 金裕俊 尹順旭 金相儀

籌備委員 嚴鍾俊 金景俊 劉勝 李弘俊 宋寅台 金用斌 尹炳甲 羅光鱗 林虎英 韓稹鎬 南百祐 崔重熙 徐鎭眞 南觀熙 金利鉉 金永根 孫祚鳳 朴昌祚 金相儀 尹順旭 金同禪 李容錫 李濟麟 南命祐 申泰今

榮州에도中等校

榮州地方三百餘儒林이奮發

【榮州】전군팔만인구가 잇슴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등교육기관이업는 경북영주(榮州)에서는전군 유림삼백여명이 합께 궐기하여 영주향교(鄕校)에모혀 지난 이십칠일 오전열한시에 중등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게되엇다

정각전부터 모혀드는 큰갓긴옷의 유림들은 삼백여명의 다수에 달한 실로 중전설후의 모임을 이루엇다 궁성요배를 마치고 뒤를이어 임시집행부에 의장권태영(權泰泳)서기 권태혁박승우(權泰赫、朴勝佑)등 제씨가 당선되어 의사를 진행케되어 아래의 역원을 선거한후 김룡호(金龍鎬)씨의 취지설명과 김우영(金佑永)씨의 중등학교가 필요하다는등 열렬한 설명이잇슨후 부의사항에 들어가서 기금조성에 잇서 토의를 시작하자 현재 영주로써 유림각단체에서 판여하고잇는 서원(書院)서당(書堂)개(槪)등의 공유재산을한한다면 적어도 칠팔만원에가까운바이니 이것을 모아 중등학교의 기금으로하자는데 만장일치되엇스며 부족되는 감군 중에서분배부담하고 그래도부족할때에는 유지의 자발적희사를 기다리기로 하엿다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한후 황국신민서사제창을 마친후 폐회하엿다

役員 會長 張斗鎭 副會長 金商鎬 總務 朴勝佑 金商鳳 李承鎬 安元容賢 李承台 總務 丁奎集 幹事 承元 幹事 金洞昭外九十九名 郵鋪 金源林 理事 權泰泳 評議員 權泰泳外四十九名

(사진은 기성회광경)

教育機關을擴充

間島移民部落에大大的計畫

【間島支社發】과거삼년간 간도성내각현에입식된 조선농민의집단부락은 취원일개소에 농민은 사만명을 돌파하엿는데 신설조이므로 문화의시설파 특히영수사상을보급시킬만한 오락시설이 업스므로 각도성개척파에서는 오락기관설치의 필요를느끼고 조선농민의 조하하는 가장소박한 무악(舞樂)인 농악(農樂)을 보급시키기로되어 이에필요한 악기를 다수주문하엿는데 도착되는대로 각집단부락에 무료배부하리라하며 문교파에서도 농민부락의 아동교육에 적당한교육기관획충을 방금계획중이라한다

甕津小學落成

運動、展覽會도開催

【甕津】황해도 옹진공립심상소학교 낙성기념식은 기보와가티 지난 이십팔일 오전아홉시부터 그학교교실낙성대강당에서 거행하니 학교직원생도는 물론이요 지와 신문기자 학부형유지등약 이백팔십여명 열석으로 식을열고 궁성요배 국가합창 황국신민서사제창을한후 판천(坂川)군서무과장의 공사보고가 잇섯고 김군수와 서포(西浦)옹진서장과 밤유장등 여러내빈의 축사가잇섯스며 식을마친후에는 교실내에설비된 성적품전람회를 참관한다음 오전열시부터 동교운동장에서 사십삼종목에 이르는기념운동회를 열엇섯는데 관중은 무려 일만오천여명에 달하여공전의 대성황을이루고 오후여섯시반에 무사히 폐회하엿다한다

鴨江水電工事로

人絹輸出에異變

【九寧浦】삭주군 구령포에서는 매일 약오만원 내지 실만필가량의 인조견이 대안만주국으로 수출되고잇스든바 그 비산문입을 지출하면서 상태리 이상운동으로 수출하게된은 현재 활하잇는데 특신의주에서는 제하이엇서 방외로 수출할수업스나 이곳은공사관계로 자반한지를 대안만주국과 어느정도까지는 수출이 원활히이용하여 이거된한 물이 현재와이용하여 이것을 상인들이 소출로 수출하는 모양이라하다 이것도역시 압강수전공사장이아니면 볼지못할 기현상이라고한다

"移民"에武裝訓練

自衛上絕對로必要

間島省、朝鮮總督府에近近提議

【間島支社發】삼사년간 치안이 안정되어 평온무사하여 간도성내각현에 거주하는 오십여만의 조선농민은 안심하고 농업에종사하여 대륙개척의 중대사명을 다하고잇든바 금년도의 개척부대이 못나치후부터 웬일인지 비적이 계속적으로 조선농민부락을 습격하여 피해가 적지 안흐며 일반이 크게 불안을느끼고잇슴에 비치어 조선농민의 자위상 무장훈련(武裝訓練)을하여 이에대한 대책강화의 필요를 느끼게되엇다

즉 간도성개척과에서는 금번 조선집단이민지대의 상황을 시찰한결과 순전히 농민으로서의 훈련은 성하나 최근 비적행동에 대처할 무장훈련은 자위상 절대필요하며 에따라서 비적의피해가 심함은 금후의 이민국책수행상에 중대한영향이 미칠것이므로 농민을 현지에 입식하기전에 강력의무장훈련을 시키어비적이 습격하여 올때에 응전할만한 준비가필요할것이라하여 근일중 타국파 조선총독부에 최근상황을 들어 서진단이민의 목적수행 달성에 만전을도모하리라고한다

平壤에又復大火

一家族五名燒死

損害는約四千五百圓

【平壤】평양에또대화——지난이십구일오전한시쯤 평양부서성리(西城里)칠십팔번지 엄용노동자황지천(黃志川)방에서 발화하야 이웃까지이동전소, 이동반소되는동시에 진화하엿는데 한참타던 삼사이기때문에 왕씨의 외로된 상사를만하내어 왕씨의 넷재딸운심(雲心)과 다섯재딸 운채(雲彩) 그의안해 강부주(康扶斗) 다섯재딸운순(雲順)등 다섯식구는 무참히도 화상을입어 오늘아침에 그만 죽엇다하며 화재원인은 방금조사중이고 손해는 약사천오백원이라한다

都市對抗씨름大會

盛況裏에閉幕

【開城】조선팔도에 내노라뽐내는역사들이 한곳의 명예를 위하여 맘동을가약하고 나서는전조선도시 대항씨름 대회는 개성체육연구회(開城體育研究會)주최와 본사개성 지국후원으로지 난이십구일 오후여덟시반 개성좌(開城座)에서 장쾌한막이열리엇다 도시대항씨름이란 개성서는이번이 처음인만큼 이날밤장안의인끼는 전부이고도로 뭉쳐 려문좃!정각도 되기전 장내는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고말엇다 이윽고 막이 열리자 본지국장 김진원(金鎭元)씨 사회로 선수입장식이 시작되어 심판에판한 서덕균(徐德均)씨의주의를마치고 대회는 시작케되엇다 벽두부터 살이뛰고 피가끌는 역사들의 육탄전은 불꽃치는듯하엿고 회를 거듭할수록묘기와 비책은 속출하여 일반관중은 가슴을 조리가며 구경하게되엇다 나종 황주(黃州)서흥(瑞興)양군의 결승전에 들어가 모두 필사적으로 싸운결과 황주군의 향우가튼 기력에 서흥군이 그만석패하고말엇다

▲一等 黃州軍=趙相淳 宋炳鎬 玄寬俊 ▲二等 瑞山軍=崔泰俊 黃仁國 尹夏炳 ▲三等 金川軍=愼謙大 安正侃 金一成 ▲個人戰=金德守(瑞興)

慶南에旱騷

苗板龜裂、麥作菜蔬等도枯死

農村마다祈雨聲漸高

【慶南支社發】경상남도일대에는 오래동안 비가오지안허서 각지에한발소동이 일어나고잇다 그리하야 각지에는 모판이구렬되고 보리가말라죽고 채소조차말라서 한발의영향은 점차커가고잇다 특히낙동(洛東)강 섬진(蟾津)강등의 큰강물은 수십년래처음보는갈수를 보이고잇서 두강물의하류지방은 바다물이 올리와서 그물을판개하다가 염분판계로 모든그만말라죽게되엇다한다

얼마전에는 낙동강 하류지방인 김해군 대저 수리조합(大渚水組)판내의 모판이 말라죽은 일이잇서 총독부판계자의 실지답사까지 잇섯고 이번에는 또다시 섬진강수리조합판내의 이평의만사천 모판이 염해(鹽害)를입어 모두 말라죽엇다는 전보가 지난 이십구일 하동(河東)군수로부터 경남도에 들어왓다 그리하야 각지에서는 다시 모를뿌리고잇는중이며 수일내로 비가오지안는다면 경남의 농사는 또다시 흉년을면키어려우리라한다

山地帶麥作은 四割減收豫想

【慶南支社發】경상남도내의 보리농사는 삼월중순까지는 우순풍조로 평년작이상을 예상하던것이 삼월하순부터 각지에 비가오지안코 내내 가물기때문에 지금예상으로서는 해안지대는 평년작에비하여 약이할감수 중간지대는 평년작 산간지대인 산청, 합천, 함양, 거창등 각지는 금명간 비가오지안는한 실념(實念)사할감수를 보리라고하며 금명이 조치못하여 품질이 나쁘고 수량이적어질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한다

咸陽선祈雨祭

【安義】경남함양지방은 누차보도된바와가티 봄이후로 비가내리지안어 농민의마음을 조리더니 군당국에서도 일반농가민심을 수습하기위하여 군내각처에 기우제(祈雨祭)를지내도록 독려하엿든바 수삼일전 각처에서는 흉흉마다 깨끗한제판을 베풀어서 기우제를 거행하엿다는데 아직 비가내리지안어 농민이매우 우려된다고한다

旱魃大甚으로 益山農民憂慮

【裡里】요즈음 전북이리지방에는 볕이 심하기때문에 모판이 타게저버렷다 일반농가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잇다한다

江原道今年稻作

降雨順調로大豐豫想

【春川】팔십산거월을 수행하고 전국각지도를 밧는벼농사는 전일 수차례의 강우로 팔미압아모의 발육상태도 매우조하서 벌써일부에서는 모심기를 시작하얏다는데 팔소산지철원(鐵原)지방과 동해안수개군에서는 유월열입홈부터 본격적이앙(移秧)기에 드러갈터인데 도처물들충분하고 수가적당하야 물건정은 조금도 업슴으로 · 대풍의전조라하야 농민들은 기뻐하고잇다한다

鐵線과洋釘配給 從來보다三倍增

【春川】강원도에는 철선과 못(釘)배급이 매우부족하여 도 공정에서는 벼미를 훌륭 발전상태는 되지도 망실하 크게우려하여 상공관계당과 도부에 교섭하여 절충한결과 전배당량보다는 적어도 삼할을 더엇게되엇다 배급통제시한후 본도배당량이 특히 엄련것은 내지에서 직수입 도매상이 여개월판계로종래에 비추어 수량을엇게되므로 지금까지는 겨우 이십오(%) 배당이엇셧는데 금번교섭결과 산마원산으로부터 직접수입하게 되어 평시의회로되리라한다

南船北馬

▲꽃시절도다 갓는데 열차 승객은 의연히계속쪽주하여 철도관계의수입이 무럭무럭 늘는것까지는 조호나 그여파로 철도게원을 올리는것이 두가지가잇다 ▲승객이몰려 복잡한것을호기로 부정수단에의하여 공차를타보자는친구의 사태가그한가지……평철(平鐵)판내에서 최근오일간에 적발한것만팔건인데 그중에는 할인증의 거짓사용이잇고 입장료로 여행하려는자이잇고 무단「노리고시」(乘越)가잇고 한번쓴 급행권을 다시써보려던 염치업는…등가지가지 ▲또한가지는 열차안과 역에서버리는 물건이 격증한 것으로 최근 십일간에만 오진삼점인데 어계이요시 가지가지로서모자(十二點)우산 파라솔(八點)현금(五點)옷조각기구가튼것이잇고 심지어 본때새나는「샤미센」(三味線)까지잇고 맨발로 다라낫는지구두까지 이저버린「두켤레」가잇다고(平鐵)

工業校建設費로 十萬圓惠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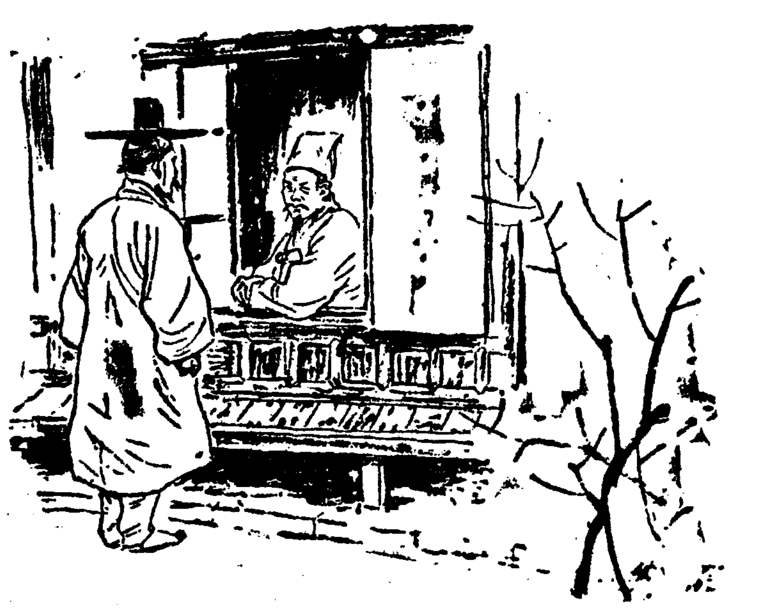
朝鮮紡績에서

【慶南支社發】부산공업학교설치기성회에서는 소화십오년도에그 실현을 꾀하고자 지금기금삼십만원모집을 목표로 맹운동을개시하고잇는데 지난이십구일에는 조선방직회사(朝紡)에서 십만원의 기부신입이잇서 관계자를기쁘게하엿다 이밧게도 일만원이상 신입자는 이삼명내정되엇는 터이라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246】

洪碧初 作 金能超 畫

자모산성上 (十八)



한온이가 만손이 내외의 지공스러운 정대와 지성스러운 공궤를 밧고 하루밤을 편히 지낸 이튼날 아침에 한온이는 덕신이아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침때 오마고했다는 사람이 이른아침때가 지나고 느즌 아침때가 지나고 해가 한나절이 다 되도록 오지아니하얏다 만손이나 집에 잇섯스면 길면 보내보기라도 하겟는데 만손이가 남북에 들어가고 업서서 한온이는 조조한 맘을 억지로 참으며 기다리엇다

「윤원형집 차지방에서 인제 일어섯겟지」

「지금쯤은 남소문 건너섯슬텐다」

「지금쯤은 남소문 큰길어구에 왓슬텐다」

「인제 다 왓겟는데」

「아니다 흥인문 이진것이 잇서서 윤원형집에서 자기집으루 들루 간게다」

「흥일 다 본구 인제는 나섯겟다」

「가까운 샛길루 오나 큰길루 돌아오나」

「걸음을 좀 재게 걸엇스면 벌써 여기까지 왓슬텐데 인제 겨우 남성밋을 가던길에나 왓진」

「굼벵이라두 그동안에 굴러왓겟는데 여태껏 아니온담」

한온이가 이와가티 생각으로 윤원형집에서 만손이집을 오기도하고 또 덕신이집에서 만손이집을 오기도하엿다 덕신이집에서 만손이집까지는 얼마안 되지도안코 두세번 허거버렷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오지아니하야 한온이가 기다리다 지처서 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꽁」하고 퇴침을 베고 들어 누엇다, 어둡기까지는 자주자주 방문을 열고 내다보고 하문아여 안저잇섯든것이다

해가 넘나절이 기운뒤에 덕신이아비가 비로소 왓다 한온이가 오래간만 만나는 인사를 하기는 자치하고 반지도 탈안코 쳐다보며

「아침때 오마구해다며 왜 이러케 늣젓소」

하고 채망하는말로 물엇다

「만날사람을 만나구오느라구 느젓습니다 어제 저녁때 가서 못만나구 오늘 식전에 가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겨우 잠간 만낫습니다」

「그래 김치선이 잇는데를 몰어봐주다구나 합듸까」

「김치선이 가서잇는데를 아주 알구왓습니다」

「아주 알구왓서? 그거잘됏소」

「상제님께서 꼿 만나보시긴 어려울것 갓튼데 그게 낭패 아닐까요?」

「어듸 가잇기에?」

「시골 가잇답니다」

「시골 어듸?」

「서울서 가깝진합듸다 용인이랍듸다」

「서울잇는걸 시골갓다구 외대주지나 안햇슬까?」

「내가 바차지를 보구 김치선이 잇는데를 손동지한테 물어봐달라구 부탁하니까 바차지 말이 김치선이 거처(去處)는 손동지게 물어볼것 업시 자기두 안다구합듸다 그래 어듸잇스나 물은즉슨 손동지가 봐주어서 영부사댁 용인 전장의 마름을 어더해가지구 갓다구합듸다 바차지두 차지들중의 유력한 사람인데 마름 출척(黜陟)이야 몰으겟습니까」

「언제 갓답듸까」

「바루 엇그적게 처자까지 데리구 나려갓다구합듸다」

「전장은 용인 어듸랍듸까」

「소지명(小地名)은 물어보지안햇는데이요 상제님께서 용인을 나려가실랍듸까」

「아니」

「대체 김치선이는 무슨일루 보실라구 그러십니까」

「치선이가 좌포장대 청직이에게 무슨 물을말이잇다구해서 그말을 좀 물어보려구 그러우」

「그럼 좌포장대 청직이게루 바루 알어보시는게 조치안읍니까」

「좌포장대 청직이라구만 들엇지 청직이 성명은 못들엇는걸」

「좌포장대에 웬 청직이가 만켓습니까 하나가 잇구 기껏만허야 두서넛이겟지요」

「좌포장대 청직이에 흥친한사람이 잇소?」

「저는 업습니다」

「친한사람으루 다리노흘 길은 잇소?」

「그건 알어보면 잇슬는지 몰으겟습니다」

「그러면 그런 길하나를 구해 돌려보우 그리구 물어볼것은 좌포장이 서림이란자를 데리구 무슨 계책을 의논하는데 그때 청직이 흘두 들엇다니 그게재이 무슨 계책인가 그 서림이란자가 어듸서 무엇하구 지내나 그걸 알구싶소 서림이란자가 조선에 귀순한뒤 일을 삿삿이 알엇스면 조켓소」

「별일이 아니라 서림이의뒤 파보는일입니다그려 그건 좌포장 청직이보다 좌포청 포교들이 더 잘알는지 알수잇겟지요」

「글세 지금 나는 알어볼께 업소」

「내가 어느길을 늘을 다려가지구 자세이 알어드리오리다 설마하니 그런일쯤이야 못알아내겟습니까 념려맙시요」

하고 덕신이아비는 곳 알어볼것가티 장담을하엿다

普仁堂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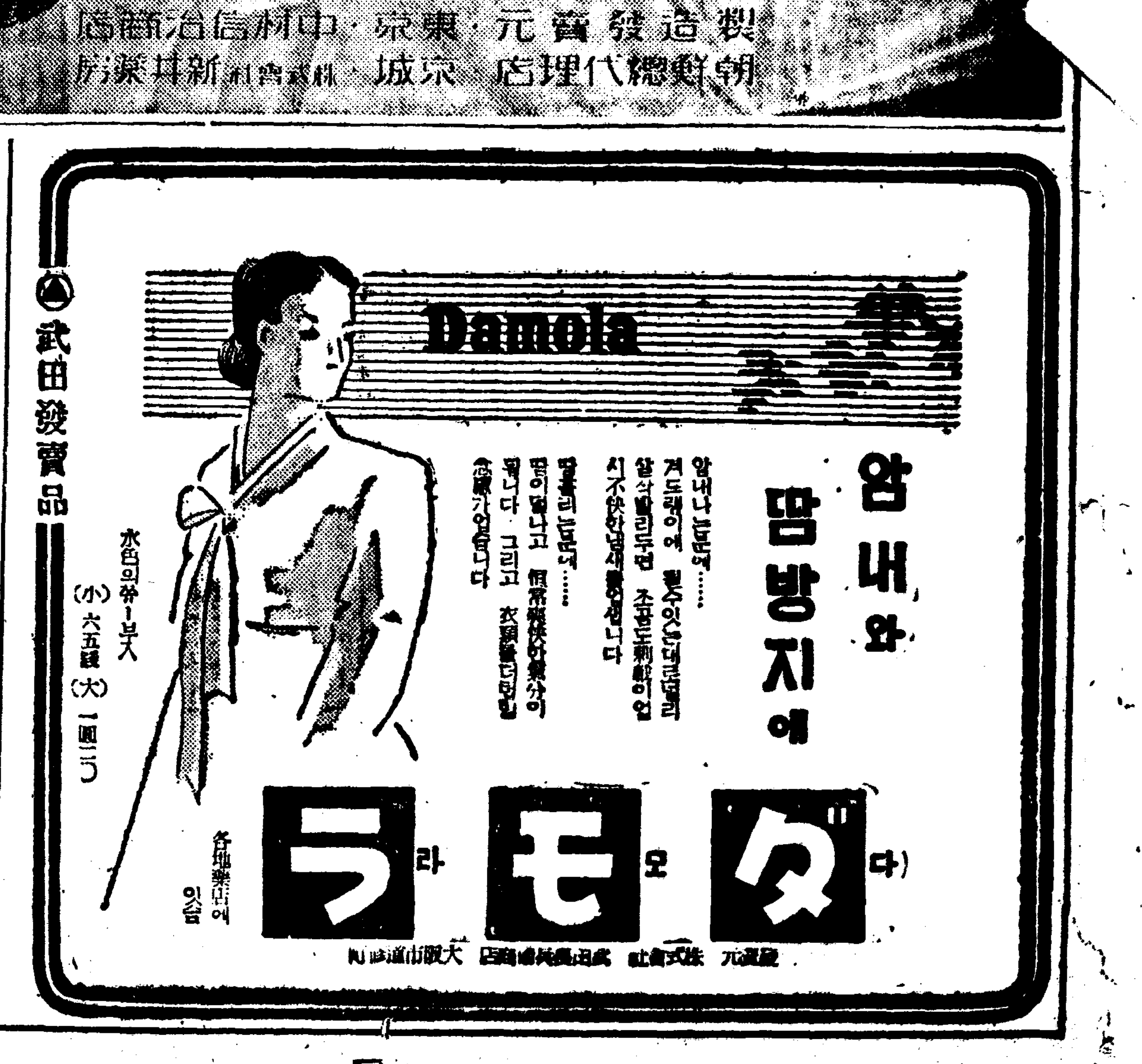
藥草 시골서보다 고와 노시고 販賣하시라거던 本藥房으로보내시요 絕對正當한時勢로 買入하겟나이다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醫生 이나 其他名醫의 處方藥을 調製하시라거던 丸散貼藥은 勿論하고 本藥房으로 보내시요 絕對責任調製하나이다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補材 貼藥을服用하시라거든 本藥房으로오시요 唯一한新材料 藥材精選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漢藥 人蔘鹿茸其他藥材를 사시라거던 本藥房으로 注文하십시오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痼疾 로辛苦하시며 治療方法을몰나苦生하시는분은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世界危機와列國의經濟政策 (三)

獨逸

非常時財政政策

今日의獨逸經濟政策은모든部門에亘하야 强力的、戰時的性質을띠고잇다。그러데獨逸經濟政策의根幹이되어잇는것은一九三六年九月에뉴른베르히市에서 開催된 나치스黨大會에서 發表된四個年計劃이다。이것을計劃에잇서서는『計劃』이란것보다 大略的으로보아 原料自給을目的한 方策이엇스나 今日에잇서서는獨逸國民經濟全體를包括하고 잇는것과가티 單只經濟、金融、貨幣乃至는 單一部門에關한것이아니고 獨逸國民의死活問題로되어잇는것으로 四個年計劃은獨逸國內經濟의 非常時對策의性質을띠고잇는것이다。

現在獨逸의모든 經濟活動은그 細微한點에까지 政府의 指令에依하야 統制되고잇는데 그指令은 너무多數이므로 그한개한개에對하야 檢討해하는것보다 如何한方法으로 獨逸의非常時經濟統制가運用되고잇는가。

換言하면 尨大한再軍備計劃과 領土의 擴大에依한 國費의膨脹을 如何히하야 調達하는가가問題일것이다。

財政狀態에關한 數字는 一九三五年以來 一切發表되지안핫으나 一九三三 乃至三八年의 六年間에 公共事業及 軍事費에支出된額은 約計五百三十億馬克의 巨額에 達한다고보고잇다。

從來 獨逸의軍事費는 主로特別手形의 發行에依하야 調達하여왓다 그러데 이手形은 國立銀行에서 無制限으로 割引되는 「메포」 手形과 (…) 獨逸의信用『이폴렌』의 額을 …

[illegible]

朝鮮의物價統制 低物價政策前進

우선機構의强化를中心으로 具體的實行案을作成

殖産局에서는 政府의新物價統制方針에 順應하야 朝鮮內物價統制의 强化에關한 具體案作成을急히하고잇든바 物價委員會의 政府商工省物價局의 擴充에依한 統制機構의 整備强化하여 物價對策의 手段에關해서 慎重考究의 結果를엇덧스므로 三十日午後非公式協議의 結果으로써 殖産局으로서의 方針을 正式決定하고 될수잇는대로 速히實行에着手하기로되엇다 而一般案은 主로 物價統制의中樞가될 機構의强化를 中心으로하는것으로 이것을 除外하고는아직 新統制方針에對한 內地의具體的이 決定되지안핫스므로 그具體的決定을 기다려 實行案을 作成하기로되엇는데 非販商工課長의 歸任으로 從來生産力擴充物資의 配給對策等에比하야 等閑視되든 物價統制는 此等의 諸政策과 竝行하는 重要事項으로서 取扱되어 低物價政策에 一步前進시키게될것으로보인다 한다

官治統制와朝鮮海運界

對內地取引에重大變化

◇…移出入順位等決定必至?

海運界의 自治統制에서 官治에의 動向은 朝鮮海運界에도相當한波及을 免치못할것이고 朝鮮의 對內地取引에도 新變化가 잇을것으로 關係方面에는 甚大한關心을 갖고잇다 …

人造石油大增産

資本一億·滿洲國法人設立

野口氏中心으로進行

朝鮮이 阿吾地에서 成功한石炭液化를 다시擴張的으로 擴充하는 人造石油增産은 이미滿洲國政府와 協議하야 野口遵氏를中心으로具體的進行中이던바 드디어資本金一億圓으로써 六月中旬滿洲國法人으로 設立하고 本社를新京에 工場은吉林에두고 朝窒에서 原料와技術을擔當하야 滿洲國과 協手하기로되엇다는바 右新企業의 槪要는 如左하다

一、資本金을 一億圓으로하고滿洲國及滿洲、朝鮮窒素의 出資에依함

一、阿吾地에 成功한 石炭液化法으로 人造石油를 生産함

一、朝窒의技術은 朝鮮에서 遂行함

一、따라서本社 技術的으로는 朝鮮窒素(野口氏)가 統率하는 것에 입사하는 外에 關係各社도 入社함

一、滿洲國은 同企業을 國策的으로 助成함

大體以上과如하며 이미 朝窒系技術者는 前後三回에 걸하야 現地에 出張하야 調査中이다

商議總會

各地提案

朝鮮商議總會에 各地商工會議所로부터의 提案은 二十五日以降 到着되어 左記의 七會議所로부터 外는 開城과 城津의二個所라한다

白米生産率增加

玄米와거의伯仲之間

朝鮮의 精米工業은 機械化 됨으로 …

昭和三年	白米	玄米
同 四年		
同 五年		
同 六年		
同 七年		
同 八年		
同 九年		
同 十年		
同 十一年		
同 十二年		

朝鮮石油總會

朝鮮石油에서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同社에서 第八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橋本社長議長下에 …

小運送料金引下?

朝運營業權七十五萬圓償却

製絲協會總會

繭價妥協議

煙草小賣人褒彰

「生産報國」講習會

八月初總督府主催로開催

朝窒無配總會

朝運重役事務分擔

生絲또續落

財界人事往來

寸鐵

今日의市勢 (三十日)

株式更落 賣氣未盡

前場低迷 / 後場續落 / 大崩落도統制?

北濱市場配當落 / 東京市場配當落

現物 在支紡續高

當限一代記

後場軟

米期不勢 當限暴落

前場低合

國債閑散

天候戰果如何

正米同調 月末閑散

京城保合 / 仁川同調 / 釜山强調 / 大邱釘付 / 群山閑散 / 木浦保合

物價 白魚暴落

朝取當限受渡高

各地當限受渡高

朝取期米取組內容

今日財界 (三十日)

京城物價 (三十日)

市場六感

海外經濟 (三十日)

鰯油粕·麥粉

銀行券 (二十日)

金利·手形交換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株式 / 期米 / 砂糖 / 生糸 / 綿布 / 棉花

[illegible]

經濟生活과道德生活

李正鎬

世人은흔히 經濟生活과道德生活을 一身에同居치못할것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잇다 …

經濟生活이라고하면 各自가 自己의生存을 目的하는것이고 …

人生은 自己生命을 維持하고 …

(筆者는 東一銀行 元山支店長)